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침례교 해외 선교 사역현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금주선교사 (SRDC 원장, Ph.D)

● 침례교 해외 선교회(FMB)가 타 문화 선교를 시작한지 이제 30년이 넘어 갔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동역자들을 멋지게 사용해 주셔서 선교 현장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다. 부족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맨땅과 같았던 중앙아시아에서는 현재까지 100여 침례교회가 세워졌고 현지 총회가 구성되어 성숙하고 질서있게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어릴 때부터 성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유치원을 비롯해서 고등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나가고 있다. 아프리카, 남미, 동/서남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도 주로 교회 개척, 신학교 사역, 교육사역, 구제 사역 등 현장의 다방면한 필요대로 FMB 선교사들은 자신의 삶을 내어 주고 있다.

SRDC(Strategy Research Development Center, 선교전략연구개발원)는 30세가 넘어 가는 FMB 사역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근간에 임태순 연구 위원 주도하에 각 지부장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 내용을 파악하였다. 리서치 결과 FMB 선교사들 대부분은 본질에 집중하고 있어서 감사했다.(개인 전도, 양육, 교회 개척, 지도자 양성 등)

COVID-19은 온 세상을 비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혼란과 고통과 불편을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선교 도구를 활성화시키기도 하였다. SRDC는 한국에 나왔다가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선교사들을 위해 "FMB Flex webinar"를 5차례에 걸쳐 개최하였고, 매회 평균 170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1명)과 터키에 있는 선교사들(5명)을 포함해서 34명의 선교사들에게 ZOOM을 통한 "'FMB 버킷하자'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다수를 대상으로 사역할 수 없다면 우린 일대일로 복음 전하고 소그룹을 통한 집중적인 양육과 교제에 집중하면 된다. 오히려 선교의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SRDC는 COVID-19 같은 환경이 계속될 것을 생각하여 복음의 개념, 개인 복음 전달 방법 등을 다양하게 소개해서 선교사들이 각 선교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던지 인터넷이란 도구는 이 일을 가능케한다. 이 도구는 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RDC는 또한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터넷, Zoom, Youtube 등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세미나를 준비하였다. 대면이 허락되면 언제라도 할 수 있게 이미 준비되어 있다.

FMB 사역 현장은 나를 드러내는 현장이 아니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현장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FMB 선교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FMB 사역현장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를 소망한다.

FMB 소속 선교사들의 사역 현황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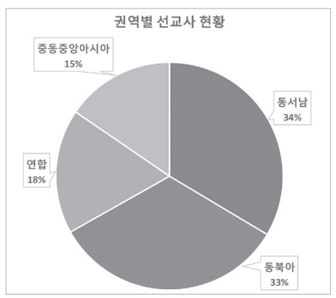
– FMB 필드 상황에 대한 지부장 설문 결과 보고서

| 前 태국, Global Leadership Focus 사역 본부장, Ph.D.
임태순 선교사

COVID-19로 인해, 앞으로의 시대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으로 나뉜다고 할 만큼 엄청난 변화에 직면해 있다. 선교현장도 이 변화의 격랑에서 예외일 수 없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침례교 해외 선교회의 리더십 변화가 잘 정착되어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 도전 앞에 서 있다. 이러한 전환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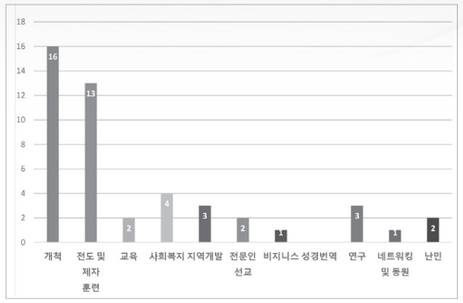
이에 선교전략개발연구원(Strategy Research Development center, 이하 SRDC)은 지부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FMB의 현황에 대한 대략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2020년 9월 셋째 주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다. 20명의 지부장 중 17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85%이며, 본 분석은 지부장 역할을 감당한 적이 있는 SRDC 연구원 응답자 3명을 포함, 총 20명의 응답자를 기준으로 진행되었다.[1)]

1) 2020년 8월 현재, 침례교해외선교회 소속 선교사 총 수는 763명이며, 이들은 동북아, 동서남, 연합, 중동/중앙아시아 등 4개 권역에 속한 63개 국가에서 사역 중이다. 침례교해외선교회 필드(선교지)는 총 4개의 권역, 20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권역은 대륙별로 구분되며, 소속 회원의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동/서남 권역(33.5%, 256명)에 가장 많은 회원이 사역하고 있고, 동북아 권역(33.3%, 254명), 연합권역 (17.7%, 135명), 중동/중앙아시아 권역 (15.5%, 118명)의 순서로 이어진다. 지부는, 선교현장과 본부를 이어주는 필드 행정의 핵심 단위이며, 하나 또는 몇 개의 국가로 구성된다. 총 20개 지부가 있으며, 가장 많은 회원이 사역하고 있는 지부는, 필리핀(12.8%), 유럽(11.5%), 중국(8.6%), 인도차이나 (6.9%), 국내(5.5%) 등의 순서이며, 아프리카,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서남아시아 지부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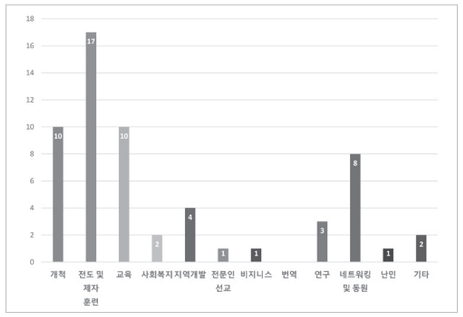
다음 내용은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이다.

먼저, 지부장이 바라보는 현장 선교사들의 중점 사역에 대해 질문하였다(3번 문항, 복수응답, 〈표 1〉). 지부장들은 전도 및 제자훈련(80%, 16명), 교회개척(70%, 14명) 등 전통적 사역을 FMB 소속 선교사들의 주된 사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사역(65%, 13명)이 다음을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지역개발(20%, 4명)과 전문인 선교(15%, 3명), 네크워킹 및 동원(15%, 3명), 그리고 사회복지와 비즈니스(10%, 각 2명) 등의 사역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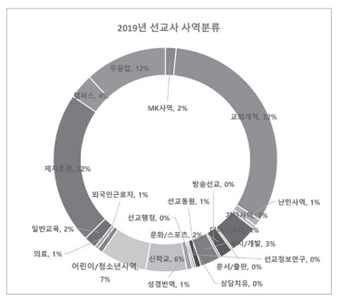
〈표 1. 현장 선교사들의 중점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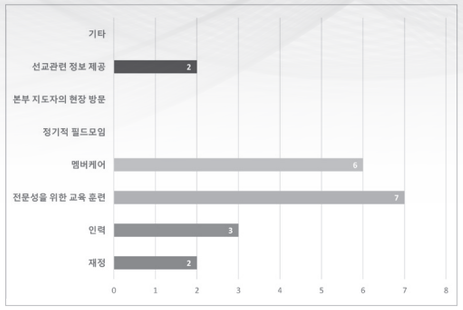
다음으로, 현장 선교사들의 사역 성장을 위해 지원되길 바라는 영역에 대해 질문했다(4번 문항, 복수응답). 이에 대한 답변은, 선교사들의 중점 사역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부장들은 전도 및 제자훈련(85%, 17명), 교회개척, 교육(50%, 각각 10명) 영역에서 사역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역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이한 점은, 동원과 네트워킹(40%, 8명)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높았는데 이는 사역 연륜이 늘어나면서 사역이 확장되고 그에 따라 현지교단이나 다른 단체들 또는 국내 교회와의 연결의 필요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선교현장의 새로운 상황에



〈표 2. 사역 성장을 위해 지원되길 바라는 영역〉

2) 참고로, 2019년 연말 보고서를 통해 선교사들(총 388유닛) 본인이 직접 체크한 주사역 상황을 가장 높은 비율 순서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개척 (32.5%), 제자훈련 (21.9%), 어린이 청소년 사역 (6.7%), 신학교 사역 (5.9%), 디아스포라 사역 (4.1%), 켐퍼스 사역(3.6%), 복지 개발사역(2.8%), 일반교육 (1.8%), 문화/스포츠 (1.8%), MK 사역(1.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외 1% 미만 응답율을 보인 사역들은 난민사역, 문서출판, 방송사역, 선교동원, 선교정보연구, 선교행정, 성경번역, 외국인 근로자 사역, 의료사역 등이 있었다. 질문 항목이 좀더 세분화된 것으로 인해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전체 흐름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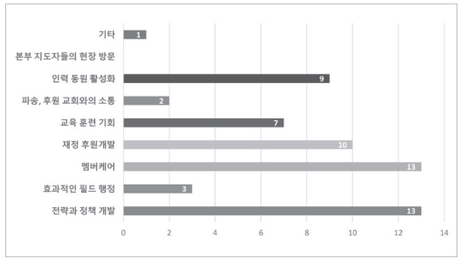




〈표 3. 본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길 기대하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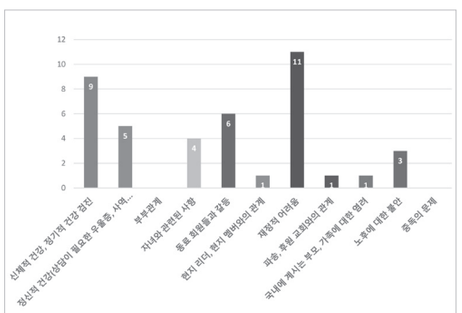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본부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하길 기대하는 영역(5번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5%(7명)가 전문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선택했는데, 이는 선교사들의 현장 사역의 역량 및 전문성 제고에 대한 관심의 표명으로 이해된다. 또한 응답자의 30%(6명)가 멤버케어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두 영역은 각각 17번 문항과 12번 문항을 통한 답변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 4. 현장 사역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본부가 도와주길 기대하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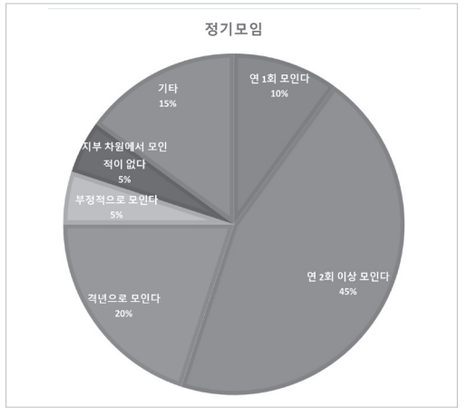
"현장 사역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본부가 도와주길 기대하는 영역은 무엇인가?"라는 17번 문항(복수응답, 〈표 4〉)은, 현장 선교사 사역역량 강화를 위한 본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이었다.(복수 선택 가능) 이 질문에 대해, 전략 및 정책개발(65%, 13명), 멤버케어(65%, 13명), 재정후원개발(50%, 10명), 인력동원 활성화(45%, 9명), 교육훈련 기회(35%, 7명) 순으로 응답했다. 이 중에 전략 및 정책개발, 교육훈련 기회 개발에 대한 요청은, 본부가 단순한 행정지원을 넘어, 필드의 상황에 맞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이에 기초한 선교사 재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멤버케어와 재정후원개발, 인력 동원 활성화 등도 본부가 더 관심을 갖기 원하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부가 선교사들의 다양한 필요들을 채워주고, 자체 재정 모금을 통해 선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사역에 필요한 사역자들을 더 발굴하고 훈련하여 현장에 보내주기 원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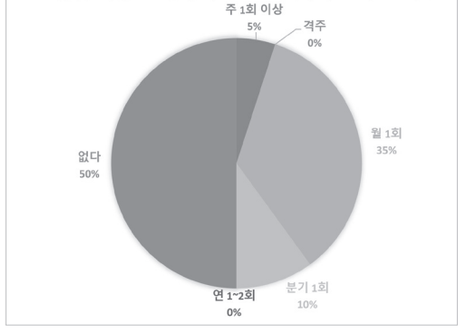


〈표 5. 가장 시급한 멤버케어 이슈〉

12번 문항(복수응답, 〈표 5〉)은 멤버케어가 필요한 구체적 영역으로, 재정적 어려움(55%, 11명), 신체적 건강(45%, 9명), 동료회원과의 갈등(30%, 6명), 상담이 필요한 정신적 건강(25%, 5명), 자녀관련(20%, 4명) 등이 순차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15%(3명)가 노후에 대한 불안을 표시하였는데, 앞으로 선교사들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후대책의 필요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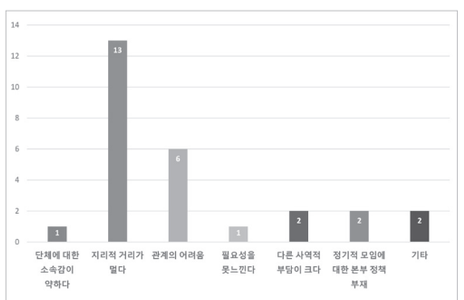
넷째, 현장 선교사의 필드사역 관리와 멤버케어의 창구라 할 수 있는, 현장 선교사들 간의 정기적인 모임, 기도모임 등에 대해 질문(〈표 6〉 참조)하였다. 정기적인 모임에 대한 질문(6번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3/4에 해당하는 15명(75%)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장 선교사들을 위한 공식 모임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정기적인 기도 모임 여부를 묻는 7번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10명)이, 두 유닛 이상이 모여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장 선교사들 사이에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기도 모임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모임보다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정기적 기도회 같은 현장의 기본적인 모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본부의 정책과 필드 지도자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표 6. 정기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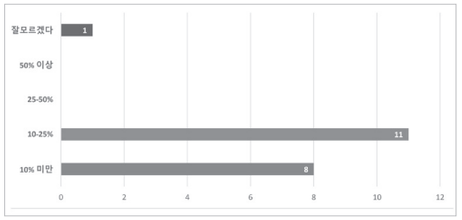
정기적인 모임 활성화의 장애물에 대해서는(9번 문항, 〈표 7〉), 지리적 거리가 먼 것(65%, 13명)과 관계의 어려움(30%, 6명)을 선택했다. 지리적인 거리의 문제는 재정 문제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표 7. 정기적인 모임 활성화의 장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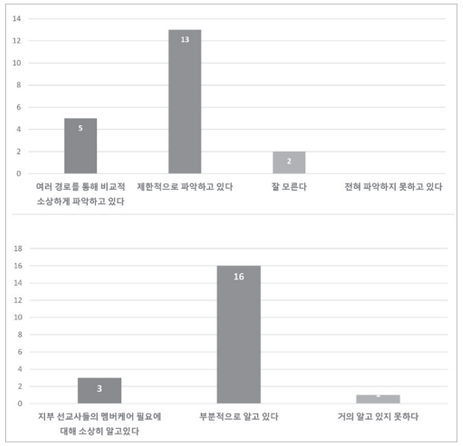
해결을 위해서는 정기 모임을 위한 본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나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재정 모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지리적 거리의 문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모임, 다양한 미디어 활용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관계의 어려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본부와 현장 지도자들의 개입을 통한 관계개선과 함께, 관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원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본부의 분명한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현장 사역이 효과적으로 관리, 지원되기 위해서는 현장 리더십인 지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표 8-1. 지부장으로서의 사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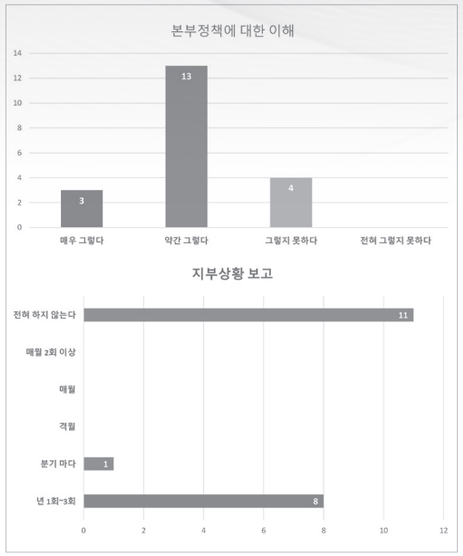
자신의 전체 사역 중에 지부장 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하였다(1번 문항, 〈표 8-1〉) 이 질문에 대해 40%(8명)의 응답자는 10% 미만, 55%(11명)의 응답자는 10~25%라고 응답했다. 이는 대부분의 지부장이 자신의 다른 사역에 집중하고 있고 지부장 사역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표 8-2. 지부 선교사들의 사역 상황 및 멤버케어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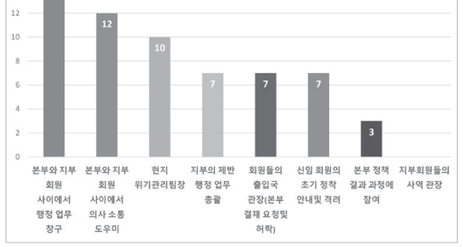
다음으로 현장 선교사들의 사역지원과 멤버 케어 필요에 대한 지부장의 견해에 대해 질문했다(10-11번 문항, 〈표 8-2〉). 사역 영역의 경우 대부분의 지부장(응답자의 90%, 18명)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멤버케어 필요 파악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응답자의 95%, 19명). 그러나 파악의 깊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분적, 또는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현장 선교사들의 상황 파악이 피상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주된 의사소통(2번 문항)이 SNS(카카오톡), 이메일, 전화통화 등 간접적 소통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15%(3명)만이 방문을 통한 직접적 만남을 언급했는데 이는 깊이 있는 필드관리와 케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섯째, 지부장의 본부와의 소통의 측면에서 질문하였는데(13,16번 문항, 〈표 9〉) 이에 대한 지부장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지부장으로서 본부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13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15%(3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약간 그렇다" 65%(13명), "그렇지 못하다" 20%(4명)으로 답변했다. "지부 상황을 정기적으로 본부에 보고하고 있습니까?"(16번 문항) 라는 질문의 경우도, 절반 이상(55%, 11명)이 "보고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지부장이 파악하고 있는 현장 상황이 본부와 충분히 소통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필드 구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중간 지도자인 지부장과 본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 영역의 정비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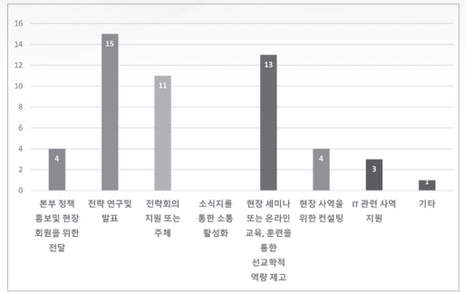
〈표 9. 본부와의 소통〉

현재 지부장이 지부장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지부장의 주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14번 문항, 복수응답, 〈표 10〉)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본부와 지부 회원 사이에서 행정 업무 창구"(75%, 15명), "본부와 지부 회원 사이에서의 의사소통 도우미"(60%, 12명)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던데 비해, "지부 회원들의 사역 관장"(0%, 0명), "본부정책 결정 과정 참여"(15%, 3명)에 대한 응답은 가장 낮았다. 지부장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본부 행정 사항을 선교사들에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현장 선교사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를 본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현장 선교사역을 조율하고 연결하는 역할과, 현장 선교사들의 다양한 견해를 취합해 본부 정책 방향에 반영될 수 있는 지부장의 역할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지부장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위해 지부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필드 리더십 기능 수행



〈표 10. 지부장의 주 역할〉

을 위한 필드기금 조성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표 11. SRDC를 통해 기대되는 사항〉

일곱째, 본부의 선교전략개발연구를 돕기 위해 설립된 SRDC에 대한 지부장의 이해와 기대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SRDC를 통해 기대되는 사항은 무엇인가?"(20번 문항, 복수응답)라는 질문에 대해, "전략연구 및 발표"(75%, 15명), "현장 세미나 또는 온라인 교육"(65%, 13명), 그리고 "전략회의 지원 또는 주최"(55%, 11명)라고 답하였다. 전략개발과 소개, 그리고 이를 교육하고 토론할 수 있는 세미나, 전략회의 등에 대한 SRDC 역할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난 8월 SRDC 온라인 세미나 "FMB Flex" 유형의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신임 회장에 대해 지부장들이 기대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의견은(25%, 5명), 현장 선교사들과 본부와의 긴밀한 소통이었다. 현장 지향적인 본부 시스템 구축과 필드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에 대한 지부장들의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현장 선교사들의 사역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한 요청(20%, 4명)이었다. 그 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개발, 원칙에 입각한 인사행정,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에 대한 멤버케어, 선교사 자녀 위한 정책, 차기 회장 선임시 지부장들의 투표권 허용 등 조직에 관한 제안 등이 있었다. 현장 리더십(지부장) 역할에 대한 규정 정비와 리더십 교육의 강화 등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맺는 말

본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 몇 가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FMB 선교사들의 주 사역이 전도 및 제자훈련과 교회개척,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역들과 함께 지역개발, 사회복지, 비즈니스, 난민 등과 같은 새로운 사역들도 시도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역들 중에 네트워킹 및 동원, 지역개발 등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도 볼 수 있었다. 현장 선교사들의 보다 효과적인 사역 발전, 멤버케어 등을 위해, 본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필드 체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도 일부 살펴 볼 수 있었다. 필드 회원들 간의 정기적인 모임, 기도회 등이 정비되고 사역 현장의 리더십으로서 지부장의 역할 활성화를 위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본부와 필드 리더들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급변하는 선교 현장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개발되고 이것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 훈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안들을 정책화하고 전략화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선교전략개발연구원이 역할의 중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설문은 선교사들의 현장사역 상황 파악, 필드 조직의 운영에 대한 간단한 평가, 그리고 필드 사역 지원을 위한 본부의 역할 기대 등에 대한 지부장들의 이해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지부장을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설문이었지만 침례교해외선교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회장 체제에서 발전시켜야 할 과제들을 가늠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향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자세한 조사가 실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보고서를 마친다.

● **첨부**

FMB 상황 파악을 위한 설문지

설문지 문항들(총 21문항)

1. 전체 사역 중 지부장으로서의 사역 비중

(1) 10% 미만 (2) 10-25% (3) 25-50% (4) 50% 이상 (5) 잘 모르겠다.

2. 소속 선교사와의 소통 유형(복수 선택 가능)

(1) 모임(회의) (2) 방문 (3) 전화 통화 (4) 이메일 (5) 카카오톡 등 SNS
(6) 기타

3. 지부 내 선교사들의 사역 중 최우선순위 사역은?(가장 중요한 세 가지/복수선택)

(1) 교회 개척 (2) 전도 및 제자훈련 (3) 교육 (4) 사회복지 (5) 지역개발
(6) 전문인 선교 (7) 비즈니스 선교 (8) 성경번역 (9) 연구
(10) 네크워킹 또는 동원 (11) 난민 (12) 기타 (필요시 부연 설명)

4. 지부 내 선교사들의 사역 성장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역 영역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복수선택)

(1) 교회 개척 (2) 전도 및 제자훈련 (3) 교육 (4) 사회복지 (5) 지역개발
(6) 전문인 선교 (7) 비즈니스 선교 (8) 성경번역 (9) 연구
(10) 네크워킹 또는 동원 (11) 난민 (12) 기타 (필요시 부연 설명)

5. 현장 사역 활성화를 위해 본부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했으면 하는 항목은?

(1) 재정 (2) 인력 (3) 사역 전문성을 위한 교육 훈련 (4) 멤버케어
(5) 정기적인 필드모임 (6) 본부 지도자의 현지 방문 (7) 선교관련 정보 제공
(8) 기타 (필요시 부연 설명)

6. 정기적으로 모이는 지역(지부) 전체 선교사 회의가 있는가? (COVID-19 이전 상황)

(1) 매년 회의(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다 (2) 연 2회 이상 모인다
(3) 격년으로 모인다 (4) 부정기적으로 모인다
(5) 지부 차원에서 모인 적이 없다 (6) 기타

7. 2유닛(가정) 이상 모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도모임이 있는가? (COVID-19 이전 상황)

(1) 주 1회 이상 (2) 격주 (3) 월 1회 (4) 분기 1회 (5) 연 1-2회
(6) 없다

8. 정기적인 기도모임이 존재하는 경우 회원들의 참여도는? (COVID-19 이전 상황)

(1) 거의 모든 회원이 참여한다 (2) 50% 이상 (3) 50%미만~20%
(4) 20% 미만 (5) 정기적 기도모임이 없다

9. 지부 소속 선교사들의 정기적인 모임 활성화의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인가?

(1) 단체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다
(2) 지리적 거리가 멀다
(3) 관계의 어려움
(4) 함께 모여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5) 다른 사역적 부담이 크다
(6) 정기적 모임에 대한 본부의 정책 부재
(7) 기타 (내용이 있다면 설명)

10. 지역(지부)장으로서 소속 선교사들의 사역 상황 파악에 대해

(1) 여러 경로를 통해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다
(2)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3) 사역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
(4)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1. 멤버케어와 관련한 파악에 대해

(1) 소속 회원들의 멤버케어 필요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다
(2)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3) 거의 알고 있지 못하다

12. 지부 소속 선교사들의 가장 시급한 멤버 케어 이슈들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다섯 가지만 고르시오.)

(1) 신체적 건강, 정기적 건강검진
(2) 정신적 건강 (상담이 필요한 우울증, 사역 스트레스 등)
(3) 부부관계
(4) 자녀와 관련된 사항
(5)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
(6) 현지 사역자, 성도들과의 관계
(7) 재정적 어려움
(8) 파송, 후원 교회와의 관계 어려움
(9) 국내 계신 부모, 가족에 대한 염려
(10) 노후에 대한 불안
(11) 중독의 문제
(12) 기타 (필요시 부연 설명)

13. 나는 지부장으로서 본부의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1) 매우 그렇다 (2) 약간 그렇다 (3) 그렇지 못하다

(4) 전혀 그렇지 못하다

14. 지부장의 주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3가지 선택)

(1) 본부와 지부회원 사이에서 행정업무 창구,

(2) 본부와 지부회원 사이에서 의사소통 도우미,

(3) 현지 위기관리팀장,

(4) 지부의 제반 행정 업무 총괄,

(5) 선교사 출입국 관장(본부 결재 요청 및 허락),

(6) 초임선교사 초기정착 안내 및 격려

(7) 본부 정책 결과 과정에 참여,

(8) 지부 선교사들 사역 관장

15. 본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습득하는가? (중복 선택 가능)

(1) 회장 본부 서신 (2) 소식지

(3) 본부 홈페이지 통해 (4) 정기 선교사 모임

(5) 전략회의 (6) 본부 방문을 통해

(7) 본부 지도자의 현지 방문을 통해 (8)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

16. 나는 지부의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본부에 보고한다.

(1) 년 1회~3회 (2) 분기마다 (3) 격월 (4) 매월 (5) 매월 2회 이상

(6) 전혀 (7) 기타

17. 필드 사역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본부가 도와주길 기대하는 영역은?

(1) 선교전략과 정책 개발 (2) 효과적인 (필드) 행정

(3) 멤버케어 (4) 재정후원 개발

(5) 교육 훈련 기회 (6) 파송, 후원 교회와의 소통

(7) 선교인력 동원 활성화 (8) 본부 지도자들의 현장 방문

(9) 기타 (필요시 설명)

18. SRDC 인지에 대한 질문

(1) 소상히 잘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

(2) 대략 알고 있다

(3) 설립된 것은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4) 설립 여부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19. SRDC 역할에 대한 이해 (복수 선택 가능)

(1) 선교정책 수립

(2) 선교현황에 대한 정리와 분석

(3) 효과적 필드행정 구조 연구

(4) 멤버케어 관련 사항 연구 및 실행

(5) 리더십 훈련

(6) 사역의 전문성 제고 위한 교육

(7) 기타 (필요시 부연 설명)

20. SRDC 통해 기대되는 사항들

(1) 본부 정책 홍보 및 현장 선교사 위한 전달

(2) 선교전략 연구 및 발표

(3) 전략회의 지원 또는 주최

(4) 소식지 등을 통한 소통 활성화

(5) 현장 세미나 또는 온라인 교육, 훈련을 통한 선교학적 역량 제고

(6) 현장 사역 위한 컨설팅

(7) IT 관련 사역 지원

(8) 기타 (필요시 부연 설명)

21. 신임 회장에 대한 기대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COVID-19 이후의 교회와 선교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선교학
이현모 교수

들어가는 말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을 겪어가고 있다. 2020년 1월 11일 중국의 우한에서 COVID-19로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3월 11일에 WHO가 글로벌 팬데믹을 선포하였다. 이후 2개월 만에 전 세계에서 400만 명의 확진자와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3개월 후인 8월 초에는 확진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는 80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다시 3개월이 지나서, 여러분이 아마도 이 글을 읽게 될 11월 초에는 4,500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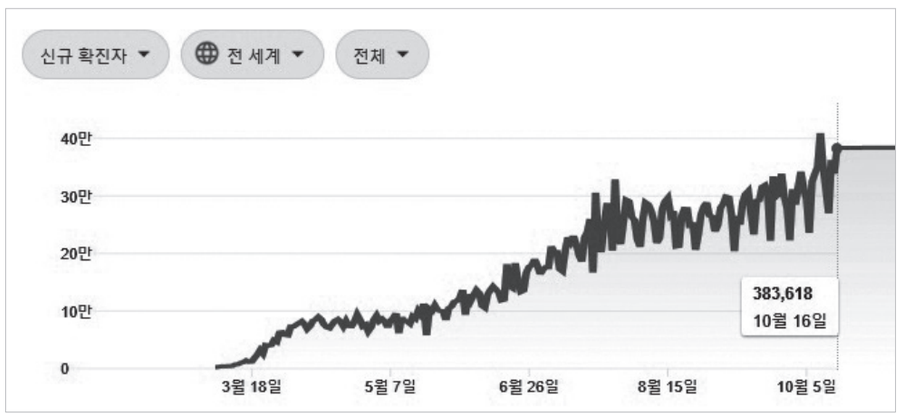


표 1. 전세계 covid-19 일일 변동 내역(출처: https://g.co/kgs/fvjFQp)

이상의 확진자와 12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지금 20세기 후반부 이후 최대의 팬데믹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대에 교회와 선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1. 팬데믹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왔다.

팬데믹은 항상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왔다. 기독교 출범 이후의 글로벌 팬데믹을 몇 개만 살펴보아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 이후 역사에 남는 첫 번째 팬데믹은 165년의 안토니우스 역병이었다. 고대 시대 통계의 정확성은 의심의 여지가 많지만 이 역병으로 500만 명이 죽었다고 한다. 아마도 천연두로 생각되는 질병이었다. 그 이후 약 100년 정도가 지난 후 251년에 다시 역병이 퍼졌는데 이를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한다. 이 역병은 안토니우스 역병보다 심각해서 2,500만 명이 죽었다고 한다. 이 통계가 사실이라면 로마 제국 인구의 절반이 사망한 것이었다. 이 위기에 기독교는 오히려 기회를 잡게 된다. 역사가인 로드니 스타크의『기독교의 발흥』에 보면 "의사들도 도피했고 병자들은 버려졌다. 사제들조차도 신전을 버리고 도피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 이들은 해답을 가진 것 같이 보였고 무엇보다 적절한 행동을 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위기에 기독교는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서 로마 제국의 모든 이교들을 제치고 사회적 신뢰를 얻게 된다. 이후 약 60년 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는데, 이는 콘스탄틴의 개인적 체험에 근거하기도 했겠지만 역병의 위기 가운데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마도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이 두 역병으로 인해 로마 제국이 치명적인 쇠퇴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지난 2,000년 역사에서 최대의 팬데믹인 흑사병이 14세기에 유럽에서 시작된다. 흑사병으로 6,0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전 세계 인구의 20%에 육박하는 숫자였다. 유럽에서만 2,000만 명이 사망하는데 이는 유럽 인구의 1/3이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 유럽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된다. 높은 사망률로 농노가 급감하게 되자 중세 봉건제도가 붕괴된다.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근대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르네상스로 연결되어서 중세 유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최근에 일어난 글로벌 팬데믹은 1918년 일어난 스페인 독감이다.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5,000만 명이 사망했다. 한국에서도 14만 명이 사망했다. 이는 당시 전 세계 인구의 2% 이상이 사망한 큰 팬데믹이었다.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다고 평가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사망한 미국은 이후

노동력 감소로 산업화에 들어가고 결국 글로벌 산업 패권국가가 된다.

현재의 COVID-19 팬데믹은 과거 역사 가운데 창궐했던 팬데믹과 비교하면 사망자 숫자를 볼 때 대단한 것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다. 거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질병을 분자 단위까지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시대이다. 이런 시대 가운데 지금의 팬데믹 상황은 이전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한 충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팬데믹 상황은 매스컴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전 세계적인 충격을 준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 동네나 이웃 몇몇 도시나 동네의 상황만을 알 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매일 중계 방송을 보듯이 전 세계 상황을 보고 들으면서 충격을 느끼는데 이 충격의 크기는 과거 어떤 팬데믹이 주었던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국경이 봉쇄되고,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되고, 경제 활동이 중단되며, 사람들의 이동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학교가 수업을 중단하는 등 우리 생애 가운데 보지 못하던 상황들을 지금 목도 하고 있다.

그림 1. COVID-19가 가져온 생활의 변화 출처 :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012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445

2. COVID-19 이후의 세계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

중요한 것은 이번 COVID-19 팬데믹도 다시 한번 역사를 바꿀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아마도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매번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기이다. 큰 차원의 변화에 가장 근거 있다고 보는 것은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이며 최근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의 예측이라고 생각한다. 유발 하라리는 COVID-19 이후 세계를 좌우할

그림 2. 코로나 이후의 세상-유발 하라리

2가지 선택이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선택은 세계가 전제주의 방식으로 옮겨 갈지 아니면 시민 역량을 고양하는 방식으로 옮겨갈지에 대한 것이다. 전제주의 방식은 대표적으로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방식이다. 국가와 정부가 사람들을 밀착 감시하고 지침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하게 된다. 현재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술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을 항상 감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유비쿼터스 센서와 강력한 알고리즘으로 개인의 비밀 영역이 없어지고 있다. 이러면 국가 권력이 고도로 강화될 것이고 감시 전제주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현재는 비상상황으로 여러 국가가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하지만 위기 이후에도 위기 대처를 빌미로 감시를 계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른 선택은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하라리는 한국과 대만을 예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높은 시민 의식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요가 아니라 개인의 책임감이 더 강조되게 된다. 이는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보인다. 결국 어떤 선택을 각 국가와 국민이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고, 이 선택에 따라서 해외 선교 활동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100% 한 쪽을 따르지는 않겠지만 어느 성향이 더 강한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하라리가 지적하는 두 번째 선택은 글로벌 분열의 시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연대의 시대로 갈 것인가라는 선택이다. 글로벌 분열의 시대로 가면 세계화가 퇴조하고 민족주의적 고립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향하는 조짐들은, 먼저 국가 간 상호 음모설이 등장하고 자국 내에서는 자화자찬하는 정치 형태가 등장한다. 자국 화폐에 대한 평가절하가 이루어지고 대신 수입 관세는 상향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먼저 정치적 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이어서 경제적, 문화적, 선교적 분열이 따르게 될 것이다. 경제적 분열은 집단 마비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미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이런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비난과 대립, EU의 상황,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경제 위기 등이다. 현재로서는 이 방향으로 세계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 비관적인 것은 2008년 금융위기나 2014년 에볼라 위기 때에는 미국이 전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극복했지만 현재는 미국의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대로 글로벌 연대의 시대로 들어간다면 국가들이 서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겸손하게 상호 조언을 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글로벌 행동 계획이 나오고 국가 간 공조와 연대가 강화될 것이다. 만약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경제와 문화, 선교 등에 부정적 영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방향으로 가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계속 고립주의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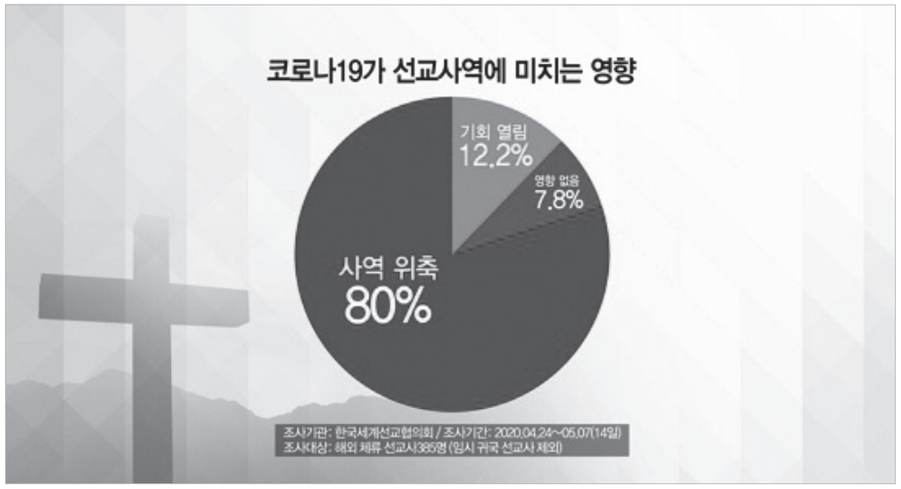
하라리는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세계가 변할지는 우리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다. 우리가 모두 실험자이고 동시에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 한다. 상식적 판단은 모든 국가가 분열을 지향해서는 안 되고 연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흐름은 글로벌 분열과 감시 전제주의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한 동안은 분열과 전제주의 방향으로 가지만 한동안의 혼란기를 거치고 나면 반작용으로 집단 지성이 역할을 해서 연대와 시민 책임사회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혼란기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 향후 수년간 주목해서 향방을 보면서 선교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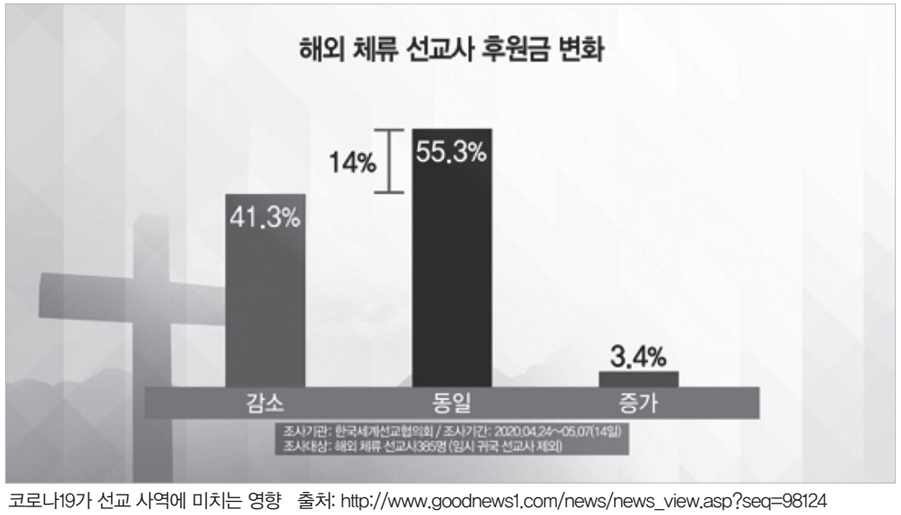
작은 단위의 사회, 문화적 변화는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 확실한 것은 향후 사회의 디지털화가 가속될 것이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거부감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던 일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비대면 업무,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온라인 상거래 등이다. 한국도 문화적 거부감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반년 만에 일상이 된 경험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것이다. 20세 후반부부터 세계의 변화는 엄청나게 빨라졌다. 그러나 이제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인데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속도가 엄청난 가속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위기 가운데 가장 치명적 손상을 맛보게 될 3개의 그룹은 미국, 중국, 그리고 UN이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Global Value Chain이 변화되면서 전성기를 서서히 잃게 될 것이다. 미국도 국제 리더십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특히 유엔은 이번 위기 상황에 제대로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 국제 리더십이 재평가되고 한 동안은 국제적 불안정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3. 선교 상황에는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혼란기 동안 선교 활동은 커다란 제약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비자 취득을 포함한 입국과 체류, 이동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모임도 제약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혼란기가 지난 후에는 전반적으로 선교 상황은 이전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현재까지 물 밑에서 잠재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선교 트랜드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표면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는 이 트랜드의 변화를 더 주목하고 위기 상황 가운데 이 트랜드의 변화에 대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혼란기 동안 합법적 신분을 가지지 않은 선교사들은 체류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합법적 신분을 취득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제한 접근지역에서 합법적 신분을 얻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이 상황에 맞추어서 근본적 접근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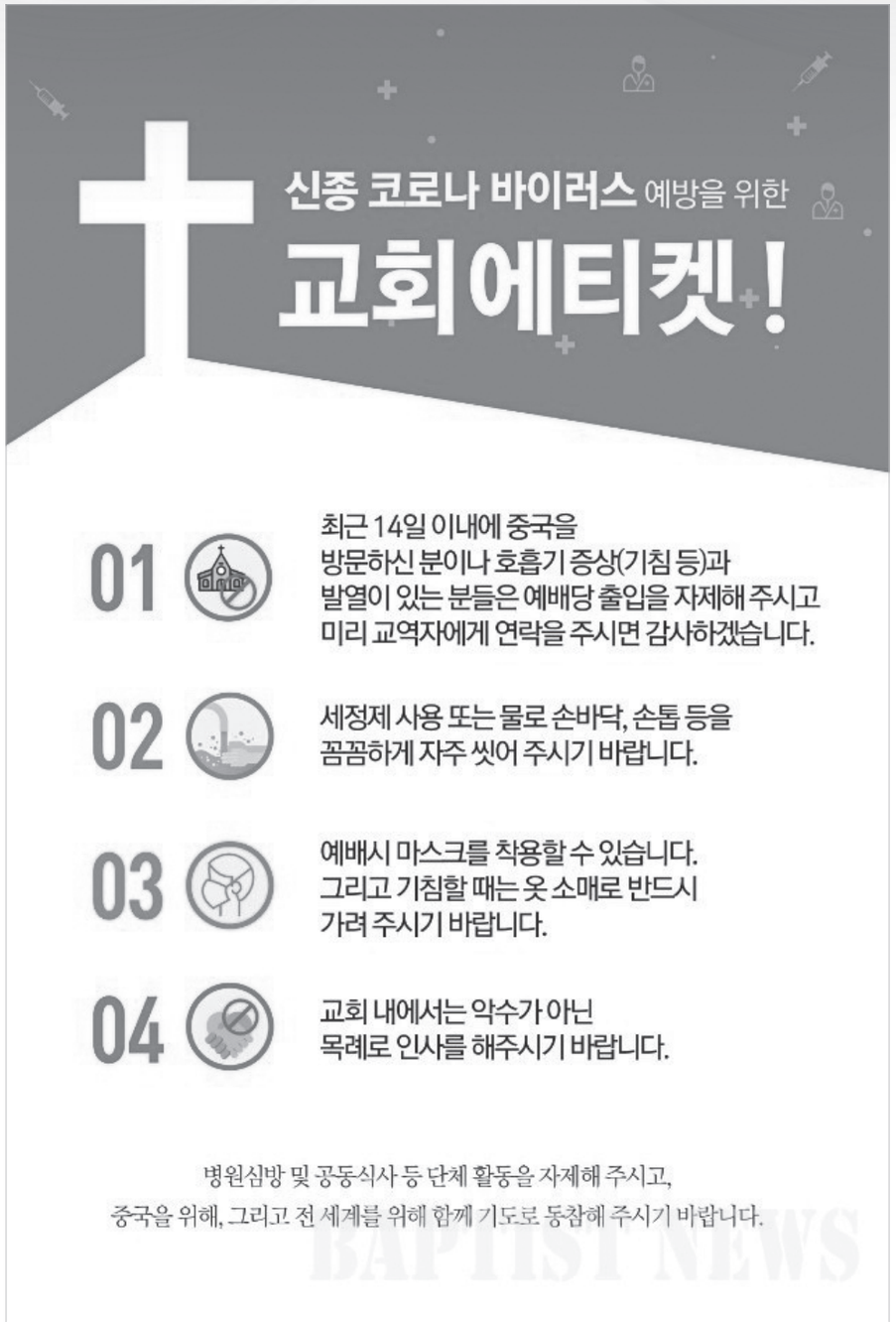
코로나19가 선교 사역에 미치는 영향 출처: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98124

개교회들의 직접 선교 참여는 한동안 크게 위축될 것이다. 선교여행이나 현장 방문 등은 어렵게 될 것이다. 선교지에서도 비대면 사역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배, 교육, 신학 교육 등에서 특히 비대면 사역이 커지게 될 것이다. 아직 비대면 사역에 익숙하지 않은 선교사들은 재교육을 통해서 비대면 사역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COVID-19가 끝나도 이제는 비대면 사역이 커다란 비중을 계속 차지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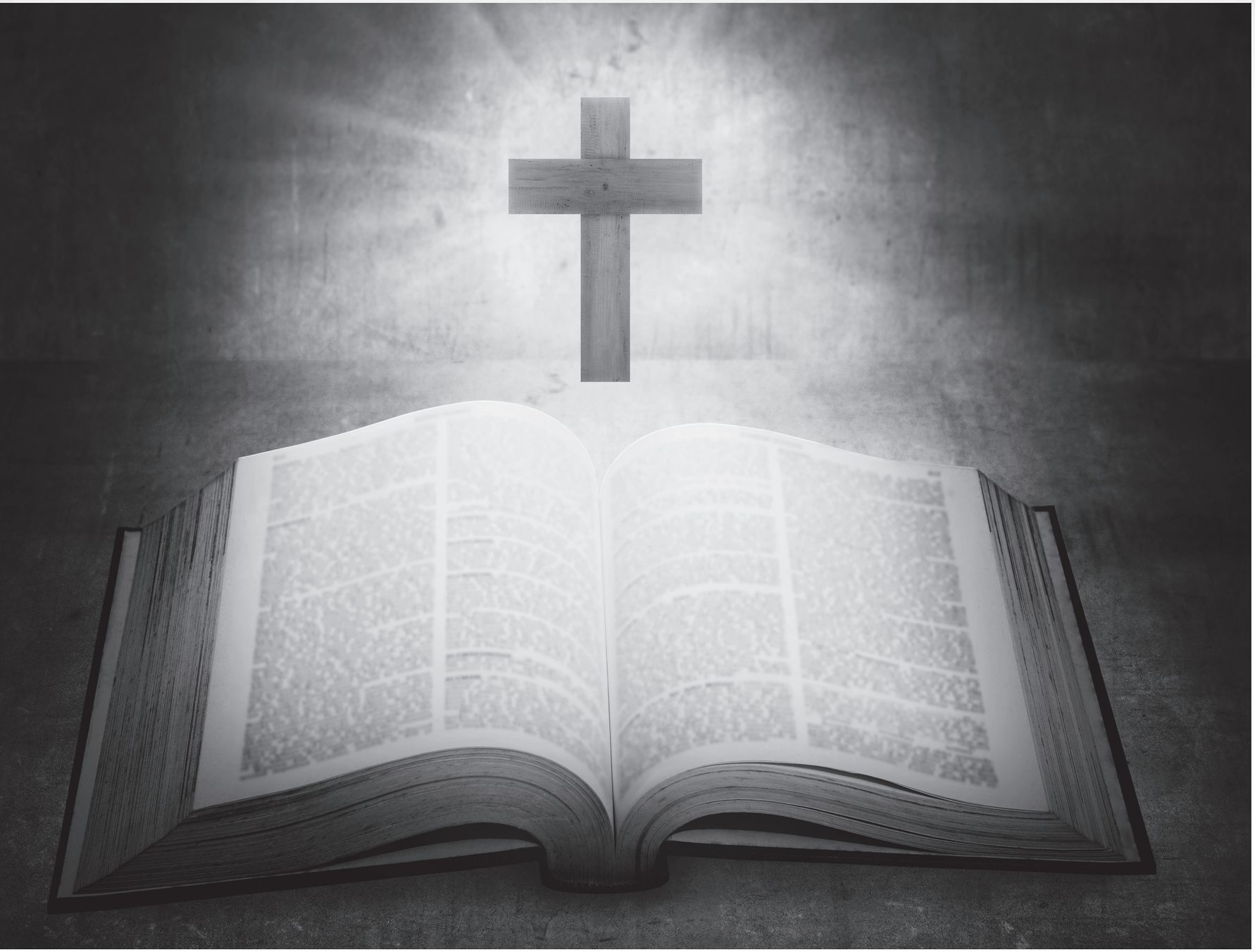
4. 한국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COVID-19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대면 예배나 모임의 제한과 대안으로 제시된 온라인 예배의 불안일 것이다. 온라인 모임에서 발생하는 염려들을 모아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로 대면 모임에 비해 소통이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다. 예배드리는 태도에 변화가 많다. 처음과 달리 시간이 지나자 복장도 편한 상태로 드리게 되고 군것질도 하며 때로는 집안일을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기도 한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집중이 안 된다. 한마디로 은혜가 안 된다는 반응이다. 둘째로는 공동체로서의 교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배에 집중한다고 해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없자 뭔가 허전하고 예배에 참석한 것 같지가 않다고 느껴진다. 세 번째로는 신앙의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것 같다. 네 번째는 전도가 많이 제약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교회의 위상이 크게 약화될까 염려라는 것이다. 공감이 되는 염려들이다.

이런 염려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선 코로나가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이라면 불편함을 좀 참고, 빨리 이 위기가 끝나서 이전 상태로 회복되기를 인내하고 기다리면 된다. 그러나 만약 코로나 사태가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위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대응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가 끝나도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사실 저도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고 전문가들이 좀 튀려고 극히 적은 가능성을 과장해서 겁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졌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고 생태학을 전공한 분을 만나게 되면서 생각이 바꾸었다. 생태계를 다루는 분은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한 것이 티핑 포인트(회복 가능한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코로나 사태는 인위적 재앙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런 재앙이 지속 될 확률이 90%가 아니라 100%라고 지적하고 있다. 필자 역시 점차 이 주장에 동의하는 편으로 변화되었다. 세상의 종말이 임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은 하나의 위기를 겪고 넘어가는 인내의



출처: http://www.baptistnews.co.kr/news/article.html?no=12844%27



시기라기보다는 새로운 시기를 준비해야 하는 전환점이라는 것이 분명해 지고 있다.

교회는 두 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기둥은 그 말씀을 교회 내에서 성취하기 위한 수단인 전통이다. 오늘날 COVID-19 상황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전통에 속하는 문제이다. 전통은 변할 수 있고 변화해야 한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는 항상 위기 상황이었다.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그런 완벽한 자유를 누린 기간이 교회 역사에서는 오히려 극히 일부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핍박 가운데, 숨을 죽이고 카타콤에서, 가정에서 소수가 모이는 위기를 수없이 겪어왔다. 그 위기 가운데 교회들은 끊임없이 전통을 변화시키면서 위기를 극복해왔다. 지금의 위기도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새로운 상황 가운데 새로운 전통을 세워야 하는 시기이다. 새로운 건강한 전통을 만들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주어진 기회를 주목하라. 코로나는 단순히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확률은 0.0008%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될 확률은 0.05%이다. 그러나 전 국민이 불안에 떠는 것은 질병 이외의 두려움이다. 감염의 두려움 이외에도, 경제적 위기, 죽음에 대한 공포, 안정적 구조가 깨어짐으로 인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 사회관계와 공동체의 약화 내지는 붕괴 위기, 소외된 약자들의 고통,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불신, 극심한 개인주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질병은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외 나머

지 영역은 교회가 답을 줄 수 있고 답을 주어야 할 영역이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에게 사역할 기회의 장이 열린 것이다. 위기 가운데 복음의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다. 교회가 이런 상황에 충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선교현장에도 동일한 사실임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이런 위기 가운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얼마 전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교회가 주님 중심이 아니라, 교회라는 장소, 건물, 예배 공간, 목회자, 만남, 인간관계 중심이 되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붕괴되는 느낌이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 관계는 형식적인 것이 되고 있다." 적절하고 정확한 지적이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어쩌면 지금이 그 기회인지도 모른다. 우리도 모르게 고착되었던 잘못된 전통들이 가차 없이 깨지고 있다. 목회자들이 깊이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 기회에 고착된 전통 중 비본질적이었던 부분을 과감히 버리고 본질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신앙의 핵심은 교리가 아니라 교리로 인해 변화된 삶의 영향력이다. 또한 교회는 제도나 기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도전하는 movement이어야 한다. 이런 신앙과 이런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

5. 선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장기적으로는 선교의 기본 트랜드가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현재 우리는 개신교 선교의 제3기에 속해서 미전도 종족 개념의 선교가 중심이 되어있다. 가까운 미래에 아마도 미전도 종족 선교 개념은 현재보다 크게 약화 될 것이다. 이전에는 이 변화가 10-15년 후에 표면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시기가 예상 밖으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미전도 종족 선교개념이 약화 된다는 것은 미전도 종족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빠른 시간 안에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줄어드는 일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선교의 대상과 필요가 빠르게 부상하면서 미전도 종족 선교가 선교 철학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선교 대항이 부상할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막연하게라도 답을 해 본다면 앞으로의 선교는 종교와 종교 간의 선교, 세대와 세대 간의 선교, 글로벌 이주 현상에 따른 선교, 난민 선교 등 다양한 대상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선교에서는 거리라는 개념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라는 개념의 경계가 모호해 질 것이다. 심지어 connected와 disconnected 간의 선교라는 개념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 선교 지도자는 적어도 10년 앞을 예측해야 한다. 한 젊은이가 선교 부름을 느끼기 시작해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선교지에 파송되어 언어를 배우고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평균 10년 이상이 걸린다. 10년 앞을 예측하지 못하면 이런 젊은이가 이전 개념으로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존재라는 당황스런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선교에 미치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거리 개념이 없어지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적절히 준비되고 선도할 위치를 잡지 못한다면 이것은 재앙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언어의 장벽을 구글 번역기나 다른 도구의 활용으로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된다면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선교 활동에 직접 참여할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미 이 가능성은 80% 정도 현실화 되었다. 이미 세상의 상당수 선교 대상자들은 SNS와 가상공간에 살고 있다. 가상공간은 더 이상 허구가 아니고 우리가 침투해서 정복해야 할 공간이다. 뒤쳐진다면 사단이 이 공간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새로운 기독교 윤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100여년 전 미국의 아미쉬 그룹은 현대 문명의 발달이 자신들의 영성을 파괴한다고 믿어서 기계사용을 거부하고 전기도 거부하고 자동차도 거부하면서 오늘날도 여전히 마차와 호롱불과 수공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는가? 아니라 오히려 관광객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했다. 앞으로 세상은 동일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영성을 죽인다는 생각이 가십거리로 될지도 모른다.

나가는 말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마주하고 있다. 바다에서 서핑하는 사람들을 보면 큰 파도가 올수록 더 즐기는 것을 본다. 그러나 서핑의 핵심은 그 파도의 앞머리를 붙잡는 것이다. 앞머리를 붙잡으면 더 큰 파도가 올수록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파도의 앞머리를 놓치면 파도에 휘말려서 빠지게 된다.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거대한 변화의 앞머리를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이 앞머리를 놓친다면 휘말려 들어가서 생존을 위해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과감히 새로운 시대의 앞머리를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새로운 시대의 선교 교육, in2mission(인투미션)

| 세계선교훈련원
하충만 간사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20)

존 파이퍼(John Piper)는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예배"[1]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영광의 최정점에 계시며 영광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자신의 열정"[2]으로 충만하시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동일한 열정을 부어주신다는 의미를 말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릴 그날'을 꿈꾸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속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동참하게 하셨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헐뜯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같은 열정"[3]을 갖게 된다. 따라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9~10)라고 기도하게 되며,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마28:29)는 지상명령(至上命令)에 순종해야 할 책임감을

1) John Piper, "열방이 기뻐하게 하라," 「퍼스펙티브스 1」, (서울: 예수전도단, 2010), 148.
2) Ibid.,149
3) Ibid.,152

갖게 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상명령'은, 정언적 명령(定言的命令) 즉 명령 그 자체가 선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선교 공동체'이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선교'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상명령 또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구절은 '마태복음 29장 19~20절'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주신 지상명령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침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4]에 헌신해야 함을 뜻한다. 이것을 박우삼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을 "회심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것"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열방과 민족을 향해 뻗어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5]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는 '교육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서 신학자 R. T. 프랜스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명령의 교육적 측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지금까지는 예수님만이 선생이었으며 마태복음에서 가르친다는 동사가 제자들의 사역에 사용된 적은 없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그의 '권세'(18절)에 해당되는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다. … 그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다."[6]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위임받은 것이며, '제자 삼는 일'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전파를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해야 할 우선적인 사역"[7]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러한 명령을 받은 교회를 향하여 "이미 신자가 된 자들을 양육하여 믿음을 성장하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할 것을 말하고 있다. 교회는 마땅히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골1:28)로 세워야 한다. 따라서 성경이 교회를 선교 공동체라고 증언한다면 교회의 구성원들은 '선교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4) 박우삼, "한국교회 평신도 선교 교육을 위한 실천적 제안," 「기독교 교육정보 제58집」, (2018), 235.
5) ibid.,236.
6) R. T. France, 「마태복음」, 권해생,이강택 역, (서울: CLC, 2013), 644.
7) Wayne Grudem,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 하」, 조진준 역, (서울: 은성, 2009), 42.

마음을 받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해야 함이 마땅한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동일한 부르심 아래 동일한 사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 역시 하나님의 열망을 함께 열망하며,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여'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 일으켜야 한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고, 이미 회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헌신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 교육은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주신 방법 중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며, 복음서를 통해 주신 주님의 명령은 교회 내 소수의 사역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결국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잠재된 선교적 자원을 발굴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하게 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선교 활성화와 더불어 사명 완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인 것이다.

선교 교육이란?

그렇다면, 선교 교육이란 무엇일까? '선교 교육'은 선교와 교육이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각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먼저 선교(mission)이라는 단어는, '보낸다(mittus, mitto)'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써 보냄을 받은 자가 "생명을 다해 감당하여야 할 심부름"[8]을 말한다. 교육(教育)이라는 말은, 가르치고(教) 양육(育)한다는 뜻의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결국 단어적인 의미로서 선교 교육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9]이라고 할 수 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표현은 선교 교육이 모든 족속을 대상을 향하여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나 외에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 즉 "헌신된 그리스도인, 온전한 성도, 장성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10]으로 세움으로써 사명에 헌신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다.

8) 손윤탁 "선교 교육의 기초 이론과 실제," 「선교와 신학 27집」, (2011), 446.
9) ibid.
10) ibid., 448

선교 교육의 중요성(또는 필요성)

손윤탁에 의하면 선교 교육은 선교 후원을 위한 후원자 교육 즉 보내는 선교사를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선교 교육이 시작된 배경과 초기 과정에 대해 그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11]

> "근대 선교 운동의 초기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나아가게 된 것은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었다. 물론 나름대로의 훌륭한 교육을 받기도 하였고,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나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선교 교육은 이들을 후원하는 선교회가 먼저 시도한 것이다. 선교회는 선교사의 지원을 위한 후원금이 필요하였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은 점차적으로 후원자의 교육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선교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게 됨으로써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선교회는 선교 사역의 필요성을 성경으로 설명하였고, 경험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의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교회의 후원을 얻기 위한 설교와 함께 교단은 자체적인 선교 후원회를 조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선교회는 선교 후원자를 위한 선교 교육 부서까지 두게 되었다."

계속해서 손윤탁은 이러한 후원자 중심의 선교 교육이 점차 대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학생 중심의 선교교육'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신도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고 설명한다.[12]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후원자들로 하여금 "선교의 필요성이나 선교에 대한 의식과 사명감, 선교사의 생활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선교사와 선교지의 소식을 전달했던 선교 교육이, 점차 "교리적인 부분이나 교육학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13]

이러한 배경 속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선교 교육은 현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일"[14]이라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중요성을 띄게 되었다. 교회 내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잠재된 선교 자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박우삼은 자신의 글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평신도를 동참하도록 훈련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며 교회 내 선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교회 내 선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김영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설명했다.[15]

11) ibid., 450–1
12) ibid., 451
13) ibid., 452
14) ibid., 461
15) 김영남, 「도대체 뭘하지?」, (서울: 죠이선교회, 2000), 131~132

* 올바른 선교를 위해서다.
* 선교의 체질화를 위해서다.
* 교회의 교육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다.
* 진정한 동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다.
* 훌륭한 선교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다.
* 선교사를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제대로 된 선교 훈련은 올바른 선교의 시작이다. 모든 교회는 본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여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일으켜 세상으로 내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버린 한국 교회의 교세 감소와 선교 동력의 약화를 막기 위해선, 보다 더 본질에 충실한 체계적인 선교 교육이 요구된다.

전문적인 선교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WMTC는, 이러한 교회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현장 선교사들과 선교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 교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WMTC는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선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적 사명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교회를 위한 WMTC의 교회 내 선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in2mission(인투미션)이라고 한다.

인투미션 선교학교[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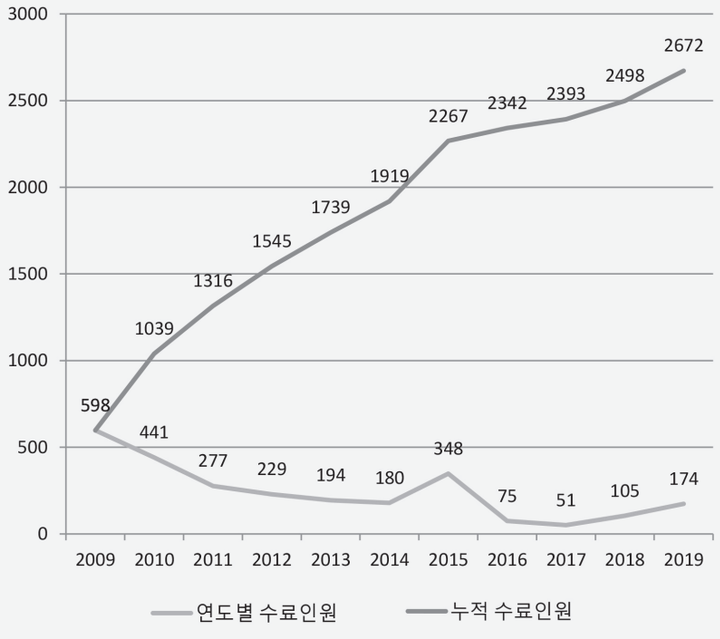
1) in2mission(인투미션) 선교학교란?

in2mission 선교학교(이하 인투미션)은 세계선교훈련원(World Missions Training center 이하, WMTC)에서 진행하는 선교 학교를 말한다. 'in2mission'이라는 말은 '선교에 빠지다. 선교에 잠기다. 선교 속으로'라는 뜻으로써 지역교회와 평신도들이 자칫 멀게 느낄 수 있는 '선교(mission) 안으로(into)' 동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WMTC는 인투미션을 통해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선교를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선교 사역에 실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WMTC는 인투미션을 통해 지역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면서 올바르고 활기있고 다양하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선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각 지역의 현장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투미션은 선교 전문가들을 통해 선교 이론을 습득하고, 현장 선교사들의 간증을 통해 사역 모델을 제시하고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는 WMTC만의 독자적인 '선교 교육, 선교 동원 프로그램'이다. 인투미션에 참여한 성도들은 인투미션을 통해 '후원자'의 개념을 넘어 '보내는 선교사' 또는 '참여하는 선교사'로서 선교에 한걸음 더 깊숙이 나아가게 된다.

2) 인투미션의 역사

WMTC는 1996년 3월부터 지역교회와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선교학교를 진행해 오다가 2004년 대전의 한 교회에서 MP(Mission Perspective)라는 이름의 선교학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2009년 3월, 명칭을 지금의 'in2mission'으로 명칭을 개정하



〈표 1. 인투미션 수료자 현황〉

16) 인투미션의 기본적인 사항은 '김진남, "in2mission 선교학교가 함께 합니다!" 「missio dei vol 2012.5」 4~6p'에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본 내용은 이 글을 참조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0년부터는 한국침례신학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많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2020년 10월 기준 42회 동안 2,600여 명의 성도들이 수료하여 각 처소에서 선교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3) 진행 및 커리큘럼

인투미션은 기본적으로 강의와 소그룹 모임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강의는 지역교회와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①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필수 과목 ② 선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추천 강의 ③ 선교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돕는 선택 강의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과 목 명		
***필수	**추천	*선택
선교의 성경적 기초	교회의 선교비전(담임 목회자)	북한선교
세계 선교현황	국내 다문화 선교	이슬람 이해와 선교
선교와 문화	타종교 이해	타종교 이해
선교역사	단기 선교여행	선교적 교회론
선교참여	기아/난민/구제사역	선교지의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의 필요성
선교사 멤버케어 /교회의 선교행정		인물로 보는 선교

80분~100분 정도 강의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는 강의를 통해 들었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자유로운 나눔을 통해 서로 은혜를 나누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스스로 정하도록 돕는 시간이다.

소그룹모임

4) 수료 및 혜택

8~10주 과정의 훈련과정이 끝나면 수료식을 진행한다. 인투미션을 수료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① 침례교 해외선교회(FMB) 장단기 선교사 시취 시 일순위 허입

② 인턴 선교사 자격 부여(최소 3개월 ~최대 1년 단기 선교사)

③ FMB와 WMTC 공식 발행 수료증 수여

④ 인투미션 상위과정 수료 자격 부여

수료식

인투미션은 지금까지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우선 성도들이 양질의 선교 교육을 받게 되어 선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각 교회들은 체계적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성도들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위치와 재능을 활용하여 전문인 선교사로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시야를 넓혀 주는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인투미션은 지역교회 비전트립 훈련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비전트립을 계획하는 각 지역교회들은 인투미션을 통해 팀원들을 훈련하고 구체적인 사역계획을 세움으로써 사역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교회와 현지 선교사 모두에게 유익한 비전트립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투미션은 지역교회 내 잠재적 선교 자원을 일으키는 역할을 감당했다. 인투미션 참가자들은 수료 후 각 교회에서 교회 내에서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인턴 선교사로 파송되어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역 경험을 쌓기도 하였다. 인투미션은 그동안 지역교회와 성도들에게 경험 많은 선교사들과 선교 전문가들의 균형 잡힌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교회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선교에 대한 거리감이나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고 지나친 열정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유익을 제공하였다.

새로운 시대와 인투미션

이러한 가운데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말은, 어느샌가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침투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인공지

능(AI), 빅 데이터(Big Data), 사물 인터넷(IOT)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변화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활과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으로 일어난 우리 생활의 변화는 대략 다음과 같다.[17]

1) 초 연결성, 초 지능화, 예측 가능성 :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성이 증가하였으며, 인간의 생활 속에서 예측 불가능했던 영역들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예측 가능한 영역들로 변화하고 있다.
2) 개인 중심의 가속화 : 스마트폰의 발전과 보편화, SNS의 확산은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든 정보에 접근하여 습득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였다. 더 이상 직접 만나지 않고도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으므로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관계 형성과 유지 형식이 다양해졌다는 측면도 있으나, 계속해서 높아져 가는 스마트폰과 SNS 의존율이 가상공간이라는 특징이 만나 개인 중심적이고 비인격적인 의사소통을 심화시켰으며, 가상공간을 벗어난 현실 세계에서는 오히려 의사소통에 장애를 느끼게 하는 부작용도 일어나게 되었다.
3) 문화적 간격의 축소 : 정보통신의 발달은 자유롭게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언제든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자원 지원과 조달 방식 역시 상대적으로 용이 해 졌다. 이렇게 지역과 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그 간 극을 좁혀 나가는 현상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4)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 포스트모더니즘과 4차 산업혁명은 개인주의를 심화시켰지만, 반대로 '소속에 대한 욕구'를 새롭게 고취시켰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서 가상공간의 편의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이며 본질적인 공동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7) 이 내용은 '최원진, "4차 산업 혁명 시대 선교의 방향성과 선교사의 역할", 「복음과 실천 제63집」 (2019), 212~214'을 주로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이렇게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난 2월 말부터 온 세상을 뒤덮은 COVID-19는, 4차 산업혁명이 불러일으킨 변화들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및 소모임 자제 권고, 대면 모임 인원 제한 등은 한동안 우리에게 많은 혼란과 불편을 가져왔고, 반복되는 COVID-19의 재확산 속에서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공식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생활은 '개인적인', '비대면 방식의 생활'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이런 변화는 교회와 선교 현장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 '현장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활동과 사역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적지 않은 혼란에 빠지기도

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형식이 아닌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SNS, ZOOM, YOUTUBE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사역이 가능함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교회와 선교는 지난 수개월동안 ZOOM의 위력을 경험했고, 비대면 강의와 예배를 통해 선교사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18]

COVID-19로 인한 사역의 변화는 WMTC의 사역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두 번에 걸친 신임선교사 훈련은 엄격한 방역 지침 준수와 내부 봉쇄라는 특단의 조치 아래 조심스럽게 진행되었고, 훈련원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수료식을 생중계하는 '하객 없는 수료식'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인투미션 역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다. 봄/가을 개설 예정이었던 지역교회 인투미션과, 기독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한 YOUTH 인투미션이 모두 취소됨에 따라 인투미션의 본래 취지와 진행 방식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COVID-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지속 될 포스트모더니즘과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시대적 흐름은, 선교 교육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언제든 쉽고 빠르게 참여할 수 있는 – 4차 산업 혁명이 가져다 준 편의를 잃지 않는 – 새로운 방식의 인투미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이에 따라 WMTC는 지역교회를 방문 또는 훈련원 시설을 이용한 대면 방식으로만 진행했던 기존 방식의 인투미션을 재검토하고 진행 방식과 참가자의 유형에 따라 6가지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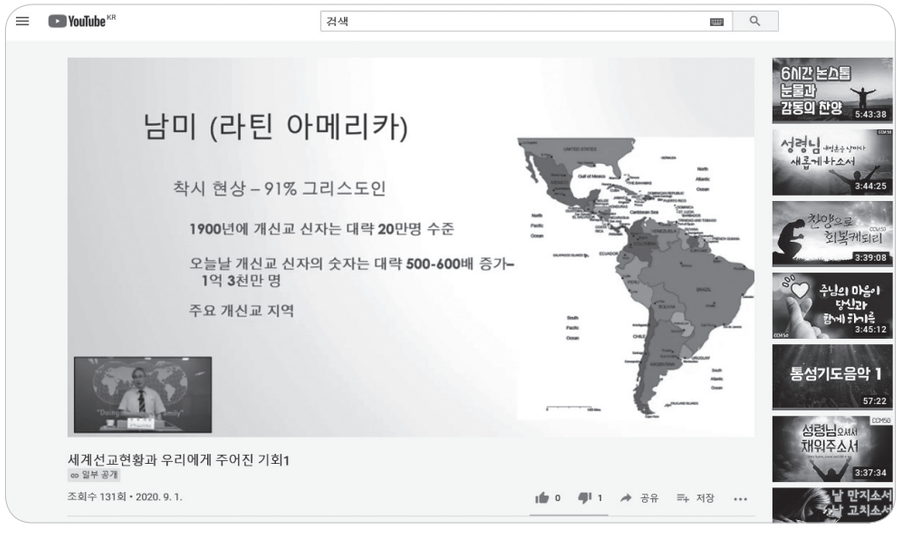
1) 지역교회 인투미션
- 기존에 진행했던 대면 방식의 인투미션으로써 각 지역교회의 요청에 따라 개교회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10주 동안 진행한다.

2) 신학교 인투미션
- 한국침례신학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투미션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여 한학기(약 15주) 동안 진행한다.

3) WMTC 인투미션
- 지역교회 인투미션과 같은 방식(대면 방식)의 인투미션으로써, WMTC에서 10주 동안 진행한다.

4) Youth 인투미션
- 기독학교 내 정규 또는 특별 과목으로 개설하여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협의된 기간동안 진행한다.

18) 최원진, "한국교회의 사명 남은 과업을 완수하라" 「holy light 11~12월호」, (2020), 34.



5) on-line 인투미션(in2mission webinar)
- 비대면 방식의 인투미션으로써 강의는 실시간 또는 녹화 중계하고 온라인 과제 제출 또는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병행하여 8~10주 동안 진행한다.

6) on/off-line 인투미션

- 대면 방식의 인투미션과 비대면 방식의 인투미션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대면 방식의 인투미션 강의(지역교회 또는 WMTC 인투미션)를 실시간 또는 녹화 중계하여 현장에 참여할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 비대면 방식(on-line 인투미션)으로 진행하는, on/off-line 병행 방식의 인투미션이다.

인투미션 웨비나(in2mission webinar)

WMTC는 기존 대면방식의 인투미션을 6가지로 재편한 후 지난 9월 8일~10월 27일까지 첫 번째 온라인 인투미션-in2mission webinar(인투미션 웨비나)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인투미션은 지역교회가 먼저 WMTC 측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 WMTC가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인투미션 웨비나는 WMTC에서 먼저 일정을 계획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참가 신청, 오리엔테이션, 강의 등 준비에서부터 진행의 대부분이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WMTC에서 시도하는 첫번째 비대면 방식의 인투미션이었음에 불구하고 11개 교회, 5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인투미션 웨비나는 온라인 방식의 선교 교육이 갖는 다양한 장점과 가능성을 깨닫게 해 주었다. 첫째, 대면 방식의 인투미션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투미션 웨비나는 WMTC가 위치한 대전에 거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나, 대전과 세종은 물론, 서울과 부산 심지어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도 참여하였다.

대면 방식의 인투미션은 한 지역의 소수 교회를 집중적으로 섬기는 기회였다면, 인투미션 웨비나는 한국교회와 선교지를 포괄적으로 섬기는 기회가 된 것이다.

둘째, 진입장벽이 낮아져 누구나 접근 가능해졌다. 대면 방식의 인투미션은 지역적, 시간적 한계가 성도들에게 있어 뜻하지 않은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재정적으로 여력이 되지 않는 소형 교회들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인투미션을 개설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인투미션 웨비나는 지역과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개교회들이 재정이나 참여 인원에 상관없이 인투미션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셋째, 비대면 사회 속에서 교회 내 선교 동원 및 훈련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COVID-19는 쉽게 종속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종속되더라도 머지않아 새로운 형태의 펜데믹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인투미션 웨비나는 비대면 사회가 지속되더라도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적 자원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교육,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역자로 서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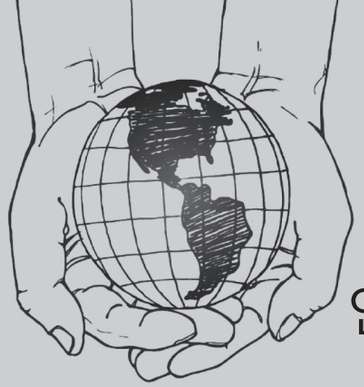
넷째, 개교회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인투미션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대면 방식의 인투미션은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상하반기 각 1회 정도 개설이 가능했다. 하지만 인투미션 웨비나는 이러한 한계에 매이지 않으며, 교회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 개설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혼돈과 공허함 속에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급변하여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같은 열정을 품은 교회들에게 필요한 전략과 방법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향한 우리의 작은 헌신은 이 땅에서는 빛을 보지 못 할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단12:3).

인투미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약 8~10주간의 선교학교 기간은, 양을 치던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민족의 지도자임을 일깨워 주셨던 것처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선교적 존재 됨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선교 완성!' '세계 복음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남은 과업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결국 완성하실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인투미션을 사용하고 계시며, 인투미션을 통해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신다.



in2mission
인투미션 선교학교 안내

1. 인투미션 선교학교란?

인투미션(in2mission)은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 학교' 입니다. 각 교회가 선교를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선교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현직 선교사 및 각계의 선교 전문가들의 다양한 강의를 통해 선교이론을 배우고, 생동감 넘치는 선교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헌신된 선교 일꾼들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in2mission의 단어적 의미 : 지역교회와 평신도들이 선교(mission)에 투입(into)되도록 동원하는 선교학교로서, '선교에 빠지다. 선교에 잠기다. 선교 속으로'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숫자 '2'는 지역교회와 선교라는 두 개념을 의미하며, 인투미션 선교학교가 이 둘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2. 인투미션 진행안내

과 목 명		
** 필수	* 추천	* 선택
선교의 성경적 기초	교회의 선교비전(담임 목회자)	북한선교
세계 선교현황	국내 다문화 선교	이슬람 이해와 선교
선교와 문화	타종교 이해	타종교 이해
선교역사	단기 선교여행	선교적 교회론
선교참여	기아/난민/구제사역	선교지의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의 필요성
선교사 멤버케어/교회의 선교행정		인물로 보는 선교

※ 과제 : 독서 보고서, 소논문 보고서, 강의 소감문 중 택일(1page)

■ 진행 : 8~10주 과정(강의 및 소그룹 토의를 중심으로 진행)
대면 방식 : 매년 상,하반기 각 1–2회, 지역교회와 협의 후 실시
비대면 방식 : 필요시 상시 개설, 5인 이상 소그룹 단위 신청

■ 순서 : 찬양과 경배, 강의, 소그룹 모임 등)

3. 수료 혜택

– 침례교 해외선교회(FMB)와 세계선교훈련원(WMTC) 공식 수료증 발부
– 침례교 해외선교회 인턴선교사(6개월~1년) 자격 부여
– 침례교 해외선교회 장, 단기 선교사 시취 시 1순위로 허입
– 인투미션 상위 과정 수강 자격 부여

■ 문의 : 세계선교훈련원(WMTC) Tel. 042–828–3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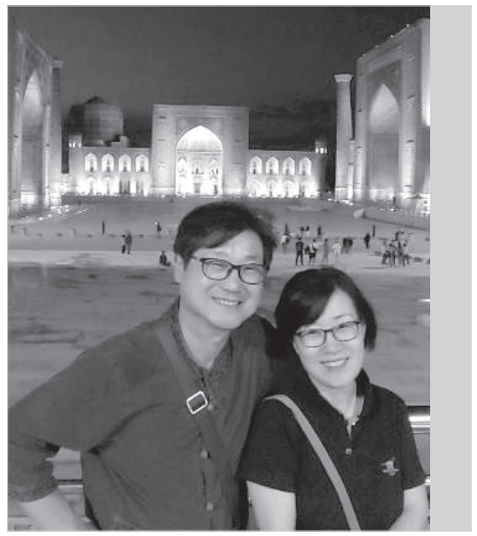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후5:17)

| **이종수** 선교사(중앙아시아 선교사)

이전 것

생이란 무엇이고, 삶이란 무엇인가? 언제까지 허황 된 욕망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1970년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4학년 쯤, 나는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님을 대신하여 가정을 책임져야 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0부의 신문을 돌리고, 서둘러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는 생활을 반복했다. 당시 의정부 가능1동 신촌이라는 빈민 동네에는 일제 강점기에 놓았다는 철둑길이 가로질러 있었다. 학교 갔다 오면 습관처럼 철둑길에 앉아 미군 부대 레이더망이 돌아가는 "선들" 이라 불리는 산을 바라보곤 했다. 선들로 넘어가는 아름다운 노을과 철둑길 아랫마을 밭에서 품삯을 받고 하루종일 일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나는 종종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생이란 무엇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풀리지 않은 숙제는 성장과 함께 더욱 깊어졌고, 나는 방탕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음악에 재능이 있다 보니 중,고등학교에서 브라스밴드를 하게 되면서 학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고, 학교폭력 사건에 주범이 되어 무기정학을 받게 되었다. 부모님의 사정으로 퇴학을 면하고 겨우 졸업은 했지만, 졸업하자마자 일명 나이트클럽과 캬바레 등, 화류계



3류 악사의 방탕한 밤생활로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하루라도 술이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었고, 간경화로 몸과 마음은 망신창이가 되어가고 말았다. 이렇게 극한 방탕의 길로 접어든 근본적인 원인은 "생의 의미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나 자신에 대한 울분이었다.

평소 무엇이든 분명해야 하는 나의 성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확고했다. 1987년 6월 어느날, 언제나 그랬듯이 조명 빛의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오면 습관처럼 술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 술잔은 고단한 세상과 작별하는 마침표가 되었다.

새로운 출발과 낯선 세상(창 12:1~)

새벽 4시, 마지막 술잔을 놓고 난생처음 교회를 갔다. 별난 남편과의 삶이 고달파 위로삼아 교회를 다녔던 아내는, 갓난아기를 업고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장발 파마와 원색적인 옷차림… 그야말로 3류 연예인의 모습으로 유별나게 치장한 채 날마다 술에 취해 어둠 속을 헤매던 한 영혼을 위해 아내와 온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 했던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강권하셨다.

갑자기 술잔에 비친 내 삶이 처참해 보였다. 새벽 4시에 술잔을 놓고 교회 문을 열었던 순간은 나를 위해 빛나던 모든 허황된 삶이 막을 내리게 된 순간이었으며, 교회 개척 이후 새벽기도 테이프를 끊은 최초의 남자 성도가 되는 순간이었다. 교회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았다. 매우 조용한 공간에서 난생처음 기도라는 것을 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고백했다. 소리 내서 기도하기엔 쑥스러워 속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했다. 얼마나 기도 했을까… 갑자기 등 뒤에서 젊은 여성이 큰소리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전설의 고향의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심장이 멎는 순간이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일주일 금식기도 마지막 날, 성가대석에 누워 계셨던 담임목사님 사모님을 성령께서 강한 음성으

로 깨우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약 3시간 동안의 기도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오니 모든 것이 새로웠다. 출근하는 사람들과 등교하는 학생들, 심지어 동네 개 짖는 소리마저 정겨운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평범했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이야… 그것은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거듭남의 나의 실체를 증명하신 확실한 증거였다. 거기서 주님은 새로운 출발을 보여 주셨고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셨다.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행 20:24)

편도 티켓 한 장만 가지고 출발한 한번 뿐인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

1987년 8월 15일, 월악산 계곡에서 침례를 받고 신학을 결심했다. 이 결단은 누구의 권면이나 의견이 필요치 않은,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이왕에 결단하고 가는 길, 하나님께 확실하게 쓰임 받자!"라고 온 교우들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다.

실망과 좌절

중,고등학교도 힘겹게 졸업한 처지라 신학대를 가기에는 문턱이 매우 높았다.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청년들도 연합고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988년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로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신학생이 되었다는 감격도 잠시,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적지 않은 실망과 충격을 받게 되었다. 학업을 중단하고 싶었지만, 아내와 온 교회의 설득으로 학업을 이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2년 쯤 지나서야 비로소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결코 천사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씻을 수 없는 죄인인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었다.

부르심

1992년 9월 생활고로 인해 신대원을 휴학하고 작은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던 중, 우리 부부를 사랑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그 한통의 전화는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으나, 선교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우리 가정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개념 조차 없었다.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남은 비용과 몇 분의 후원으로 마련한 비행기 표는 우리 부부가 내딛은 선교의 첫발이었다.

모스크바에서의 사역(1992~2002)

1992년 9월 30일 우울하고 을씨년스런 모스크바의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현지에서의 첫날을 맞이했다. 한국을 떠날 때 옷 보따리 세 개가 전부였기에 겨울이 다가오지만 옷이 별로 없었다. 가족들과 함께 시장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만난 고려인 2세 노부부는, 이런 우리 가정이 불쌍하게 보였던지 집으로 초대하셔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겨울옷도 챙겨 주셨다. 이렇게 현지인들을 통해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도움을 받으며 선교에 첫 단추를 달게 되었다.

겁 없이 시작한 모스크바의 선교 사역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쉽지 않았다. 도착 후 4년 동안 언어공부와 전도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94년 무렵부터 한국에서 밀려 들어온 선교사들과 단기 팀들은, 앞다투어 극장이나 문화회관을 임대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모스크바 시내가 떠들썩할 정도로 요란한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동네 아이들 몇 명과 함께 10평 남짓한 아파트에서 주일학교를 하고 있던 나마저 상대적 박탈감이 들 정도였다. "이것이 진정한 선교란 말인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여 주셨던 사역의 모습과는 매우 거리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그러던 어느 날(95년 무렵), 러시아 정교회에서 모든 극장과 문화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모임을 금지하고 한국 기

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강력한 제재법령을 통과시켰다. 그 후로 짧은 시간 호황을 누렸던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의 러시아 선교는 하향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1998년, WMTC 훈련과 나름대로의 연구를 통해 정의한 선교와 선교사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사역의 현장 가운데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과정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선교의 내용과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를 한 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진리는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다"는 것이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전 2:4)

따라서, 선교는 최고의 선교전략가인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로부터 전수받아야 하며, 이분들이 보여 주셨던 사역 방침은 그 어떤 전략으로 인해 희석되면 안된다고 믿었다. 복음서를 통해 확인한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전도와 양육이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막 1:38)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눅 4:43)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사도들의 사역 역시 대부분 전도였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했다. 나는 지금까지 그 어떤 선교전략보다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보여준 단순한 선교전략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했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역의 진정성이며 강력한 무기라고 믿고 있다.

10평 남짓한 아파트에서 몇 명의 아이들과 시작했던 모스크바 선교는 그것이 씨앗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졌고, 중국인과 조선족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 이렇게 복음을 받은 조선족 제자들은 SARS(중증급성 호흡 증후군, SARS-CoV)로 인해 중국 본국으로 흩어져 NK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고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지하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성지 U국(2004~2012)

모스크바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성지라고 불리는 U국으로 사역을 옮기게 되었다. 이슬람 국가에서의 선교 사역은 많은 제약과 위협이 뒤따르는 일이었지만, 나는 이곳에서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보여 준 단순한 선교 전략(복음전파)을 그대로 실행하고자 노력했다.

지금보다 더 살벌했던 시대적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 예수님의 복음 그 자체가 위험천만한 사상 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위협에 맞서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며, 이슬람의 위협은 실재하지만 이곳에서 역시 복음 전파로 승부를 걸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매일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 하루 평균 10㎞를 걸어 다니며 복음을 전한 탓에 발바닥이 갈라지고 부르트기도 했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이 당한 핍박과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돌로 맞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굶고 춥고 헐벗고……" (고후 11:2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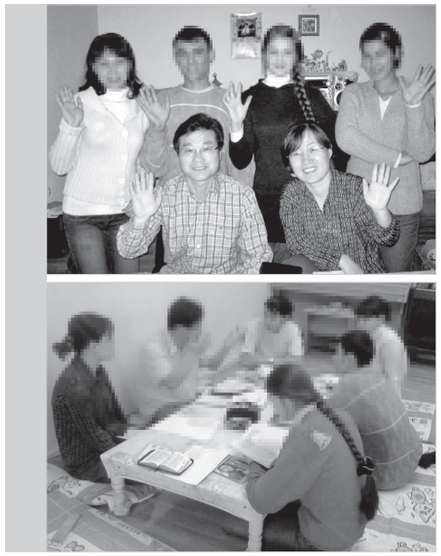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행 5:41)

"20개의 씨앗 중에 하나의 씨에서 싹이 난다면 그것은 대성공이다." (가나안농군학교 교훈 중에서)

불특정 장소를 다니며 수백명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3년 만에 4명의 제자 훈련생이 세워졌다. 세워진 훈련생들을 이슬람조차 감당하기 힘든 강력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기준과 목표를 설정했다. '어떤 제자를 만들야 하는가?',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교회공동체를 세우도록 할 것인가?' ' 선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디까지인가?' 선교사의 역할은 목양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목양을 맡길 수 있는 강력한 제자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제자들 스스로가 재생산하여 목양의 근거를 개척하고 목양을 확장하도록 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기준과 목적이 확실하게 정립되어야만 선교지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다…

고민 끝에 나름대로 혹독한 훈련의 기준을 마련하고, 제자 훈련생들이 이슬람 정통과 문화에 찌든 관습을 벗어 버릴 수 있도록 혹독하게 훈련했다.

첫째는 언어 사용과 옷차림을 바꾸도록 훈련하였다. 이슬람권에서 습관처럼 사용하는 "후도 호흘라싸"(신께서 원하시면)라는 표현을 금지했다. 좋은 표현 같지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거짓 언행을 하는데 악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슬람 전통 의상을 입지 않도록 권했다. 굳이 이렇게 훈련했던 이유는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 자세와 언행이 달라지며, 구별된 옷차림은 이슬람 문화 속에서 기독교 사상을 숙지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훈련 중 훈련이 힘들게 느껴지거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발각되어 핍박을 견딜 수 없게 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다. 이유는 복음의 가치가 조금이

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각인시키기 위함이었다. 훈련생들은 훈련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저녁 일이 끝나는대로 훈련장소로 달려오도록 했다. 1분이라도 늦으면 호되게 야단쳤고 3번 이상 지각을 하면 문을 걸어 잠갔다.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무슬림 공동체 내에서 살아남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이슬람 세력을 정복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심어 주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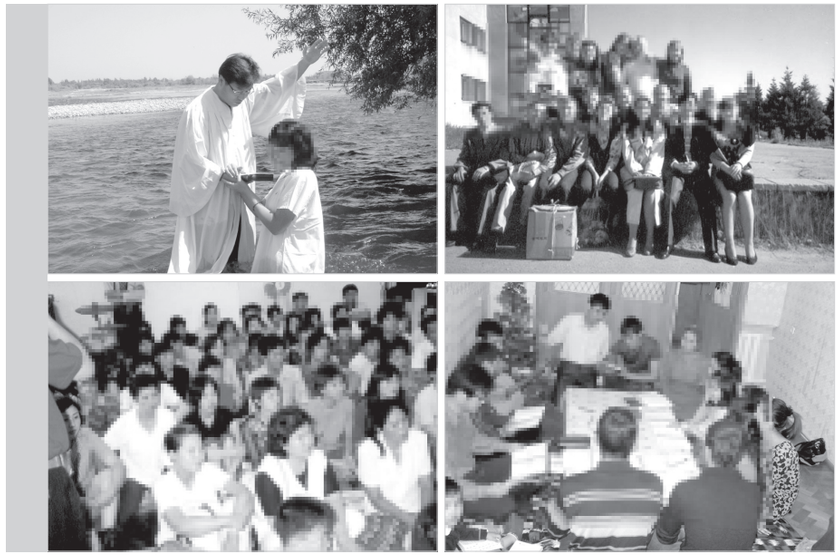
훈련한지 3년이 지나자 제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 11명의 제자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 제자들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가고 있을 무렵(2012년 4월) 추방의 낌새가 느껴져 제자들을 한자리에 부르고 세족식을 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한 3명의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는 예배를 드렸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우리 부부는 추방을 당했고 제자들은 감옥에 끌려가 모진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제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눈물로 간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함께 끌어안고 나 역시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동안 제자들은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수시로 안기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고, 지금도 국가 안기부 요원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감옥에서의 고난은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주었다. 단 한 명의 제자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크고 강한 믿음으로 복음 확장을 이루어내고 있었다. 11명의 제자들을 통해 60여 명의 제자들이 새로 세워졌고 이들은 모두 생명을 내어놓은 복음의 용사들이 되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것은 공동체 안에 전통과 자부심이 되었다. 이들은 현재까지 4개의 도시에 제자들을 파송해서 공동체를 세웠고, 이들을 통해 복음은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U국 12개 도시에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자신

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 전도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 우리 부부는 남은 생애 동안 U국 공동체 확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다시 U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세대 제자들 중 6년 전 목사 안수를 받은 현지 목사 사모의 간증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나는 감옥의 고통과 수시로 안기부에 끌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나의 제자들이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날까봐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나와 우리의 제자들은 이렇게 혹독한 고난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친구들에게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며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예수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기쁨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혹독한 현실이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2020 Missionary Training

1. 29기 장단기 선교사 훈련(6. 2~8. 21)

훈련소감문 이민경 ····· 54

문창화 ····· 56

훈련생 소개 및 기도제목 ····· 59

사진으로 보는 29기/MK이야기 ····· 64

2.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MUT, 10. 20~11. 13)

훈련소감문 이화섭 ····· 68

장마야 ····· 70

강토야 ····· 72

사진으로 보는 MUT ····· 74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민경 (29기 훈련생)

WMTC에 대해서는 20여년전부터 교회 선배님들이 참여하시고 선교지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렴풋이 선교사 훈련원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 후로 남편(박수홍 선교사)을 만나고 선교의 비전을 함께 갖고 결혼 5년후 4살된 딸과 몽골로 선교를 떠났다. 그러나 열정만 가지고 선교지와 몽골 선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급히 떠나, 선교지에 간지 3개월 반 만에 우리를 파송한 선교단체와 결별을 하게 되었고 2년 반정도의 세월을 우리 가족 스스로 자립해서 살게 되었다. 그 후 2년 반 동안 합법적 체류를 위해 몽골민족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영국국제학교(ESM)에서 담임 선생님으로 일을 하면서 그 곳의 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그러나 날마다 삶의 긴장감과 과중한 업무로 지치고 힘들어져 갔다. 뜻밖에도 주님은 올해 1월에 샘깊은 교회를 파송교회로 만나게 해 주셨다. 감사하게도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을 하고 있었기에 파송교회에 인사를 하러 한국에 나올 수 있었다. 반면에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몽골로 재 입국을 못하게 되어 지금까지 한국에 있게 되기도 했다. 그 때는 너무 당황되고 몽골이 문을 열기만을 목을 빼고 날을 세고 있었으나, 그 덕분에 WMTC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나는 평생을 평신도로 교회 내에서 한 부분을 섬기는 정도의 삶을 살아올 뿐 특별히 선교훈련이나 신학적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선교지에 계신 FMB선교사님들이 WMTC훈련을 받아보라는 권면을 하기도해서 내심 훈련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

드디어 꿈 같은 순간들이 내 삶에 펼쳐진 것이다. 기다렸던 훈련소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나의 마음과 몸은 다소 차분하고 지쳐있었다. 훈련 첫 주는 나에게 안식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강의가 끝나면 남편과 함께 침신대 캠퍼스 나무와 풀숲 사이를 거닐며 이야기를 하며 쉼을 가졌다.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선교사란 누구인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여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강의 하나 하나에 깊은 반응을 하며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아하!' 하면서 나의 머리를 치기도 했다. 특별히 선교사의 소명과 책무와 관련된 강의 속에서 나와 우리 가족의 지난날을 뒤돌아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살고 싶었으나 살지

못하는 답답함의 응어리가 하나씩 풀어지는 과정이었다. 훈련원에서 제공해 주신 상담시간은 인생에서 처음 경험해 보는 전문적인 상담 시간이었다. 상담과정 속에서 나의 무너진 영역의 현실을 더 실감하게 되고 남편도 그 부분을 함께 바라보면서 같이 가슴 아파하고 나에게 대해 더 공감해 주는 시간이 되었다. 많은 강의 시간들이 있었고 모든 시간들이 대단한 수준들이었다. WMTC의 훈련과정이 너무나 프로페셔널하고 누구에게라도 소개하고 싶어 질 정도였다. 남들이 말하는 선교지에서 MH(멘땅에 헤딩)하고 온 나에게, 누군가가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선교사는 본인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라고. 주민호 선교사님 강의에서 환하게 웃는 예수님 그림을 보면서 나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모른다. 나의 심지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기쁨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힘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 기본적인 역량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Balanced' 와 'Separated'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나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동적인 삶과 정적인 삶, 이성적인 삶과 감성적인 삶,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등 여러 측면의 기준에서 삶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내가 속한 타국의 문화와 관계성,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에서 생겨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잘 분리시켜 매시간 정리정돈을 잘 해주어야 한다.

코로나가 다시 창궐한 8월 말, WMTC 29기 훈련은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앞두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몽골은 아직 국경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전 세계에 어디든 함께 계시며 그가 인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마음, 곧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그의 자녀로 영광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이다. God is working. He is working. God is working even now. 쉬지 않고 우리 영혼을 위해 일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나를 사랑하고 나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주신 날까지 살아가고 싶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막10:45)

문창화 (29기 훈련생)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며 개인적으로는 시골 출신인 저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크신 축복과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저에게 부담으로 남겨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시골 교회의 전도사님을 통해서 '성공하려거든 섬기라'는 교훈을 자주 들려주셨는데 이것이 선교단체 CCC와 교회를 통해 섬김의 마인드로 자리잡고 현재 저희가 걷게 된 선교사의 길에 대한 기본 방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해 12월 FMB의 인턴선교사로 허입된 후 1월에는 영안교회(부산)에서 파송식을 가졌으며, 일반 학교를 조기퇴직하고 몽골 울란바토르 선교사자녀학교(UBMK SCHOOL)의 교사선교사로 헌신하고자 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대구에서 코로나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몽골도 외국인의 입국을 막았으며 저희는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줌(zoom)으로 연결하여 UBMK 학생들과 수업도 하고 큐티 나눔, 담당 학급의 조례 등을 수행해 왔지만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해외선교회(FMB)에 들러 유서까지 써 놓고 출국하려 하다가 그냥 기다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저희를 무척 힘들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WMTC의 장단기 선교사 훈련이 추가로 개설되어 학교와 교회의 허락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남 삼천포에서 태어나 유년기와 중학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까만 얼굴을 가진 시골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CCC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0만 선교사 파송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한 후, 직장과 가정과 일반 모임들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다짐과 약속들을 애써 기억하지 않았고, 그냥 평범한 성도 중 한 명으로 살아왔습니다. 결국, 아내가 먼저 지난 약속들을 되새기며 '한 번도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하지 마십시다'는 권유를 하였고 그 말을 들은 저는 애써 외면했던 일들을 부끄럽게 여기며 마음을 바로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발 마사지를 배우고 교회와 외국인을 위한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난타를 배워 어린이나 어르신을 즐겁게 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 한국어를 접촉점으로 삼아 다문화인이나 현지인을 만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 교회의 행사인 단기선교여행에도 참여하였는데 몽골, 그곳에서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의 애로(隘路)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저를 기독 교사로 부르셨고 이제는 선교사의 자녀들을 위해 다시 부르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30여 년간 삶의 모든 것인 양 생각해 왔던 학교 교사의 일을 하나님은 헛되다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전임사역자도 아니고 10여 년의 목자 경력이 전부인 저희가 선교사라는 사역자로 떠나게 된다는 것이 가슴 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저희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29기 WMTC 장단기선교사 훈련은,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 실시된 첫 여름 훈련이었습니다. 저희 마음은 빨리 몽골로 가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으나 훈련원의 시간은 더디기만 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간도 길었으며 하루하루의 시간도 길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의미를 느끼면서 저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가지는 훈련원식 큐티는 다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큐티의 의미와 쓰임까지 알게 해 주었습니다. 침례교회의 역사와 우리 침례교단의 선교역사를 들을 때는 우리 교단과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으로 흥분된 가슴을 누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의 선교, 선교사의 책무, 선교의 동향 등을 통해 접하게 된 선교학의 이론과 실제들은 저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일깨워주었습니다. 타종교의 이해는 타종교와 타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제시할지를 고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가정과 올바른 인간관계를 위한 각종 심리검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상담 시간들은 부부관계까지도 건강하게 이끌어주며, 가정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들이 자연스레 선교의 열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원근 각처에서 선교사의 영성을 위해 강사로 참여해 주신 목사님들과 선배 선교사님들의 살아있는 간증과, 현장 경험을 기초로 한 여러 권면들은 우리들의 가슴을 흠뻑 적셔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선교사의 실제적 삶과 준비를 위한 교육도 훈련의 흐름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었는데 그다지 힘겹지 않게 기도편지도, 사역보

고서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의 경우, MK학교의 교사선교사로서 현지인을 직접 만나고 제자화하는 일에 대해 한 걸음 빗겨 서서 지원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교사는 복음 전도와 제자화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훈련원의 강한 도전이 바로 저 자신을 향한 것임을 인식하고 MK학생들의 제자화에서부터 한국어 교실과 오픈 하우스를 통해 접촉점을 찾으며 제자훈련, 목장교회, 나아가 건강한 교회 개척의 열매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역계획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몽골의 초원에 씨앗을 심고 묘목을 길러 튼튼한 두 그루의 나무가 우뚝 서는 것을 상상하게 되었는데, 흙이 얕은 몽골 땅에 씨앗이나 묘목이 심겨 나무로 자라는 것은 그 나무가 물을 머금었다는 뜻이요, 새가 깃들고 다른 나무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된다는 것이기에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저희가 아무런 훈련이나 교육 없이 몽골 땅을 밟게 되었다면 MK들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지식은 전할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돕지는 못하리라 생각되었고, 하나님께 드려질 우리의 충성이 너무나 미미하였으리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발이 묶인 것은 아쉽지만 더 좋은 훈련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역시 성경에 이름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인되신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가르침을 주신 WMTC와 기회를 주시는 FMB, 그리고 연약함을 보시지 않고 파송해주신 영안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9기 선교사 훈련생 소개 및 기도제목

김실라 / 이해나(찬양, 기쁨, 별)

- 파송국가 : C국
- 파송교회 : 새소망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하나님 한분만을 따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삼는 본이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거룩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않는 순결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에 편견없는 온유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사명에 충성하는 성실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가정의 존경받는 든든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재정을 보고하는 투명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어둠에 빛이되는 희망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 기도제목

1. 그 땅을 깊이 사랑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2. 교회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3.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도록
4. 가는 곳 마다 예비된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5. 부부와 삼남매가 건강하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김아더 / 이리나

- 파송국가 : R국
- 파송교회 : 행복한교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7:12)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라나타!

■ **기도제목**

1. 언어를 공부할때 지혜를 주옵소서
2. 사업종목을 잘 선택할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고 바른 기업관을 주소서
3. 사업장을 통하여 복음의 근원지가 되게 하소서.

김현준 / 맹선정

- 파송국가 : 미얀마
- 파송교회 : 미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1:9)

밍글라바! 미얀마에서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자 새롭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쓰실 선교사의 그릇되게 빚어가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 **기도제목**

1.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사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2. 야다나빤낀 고아원 아이들에게 제자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3. 고아원 아이들과 스텝들, 우리 가족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문창화 / 정계연

- 파송국가 : 몽골
- 파송교회 : 영안교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14)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5)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약 40년 전 대학 시절에 품었던 약속과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따라 몽골의 선교사 자녀들과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자 나아갑니다.

■ **기도제목**

1. 기도와 말씀 충만으로 몽골을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2. 몽골의 비자와 항공이 열리어 속히 입국하게 하소서.
3. 문화와 언어를 잘 습득하고 환경에도 잘 적응하게 하소서.
4. 선교사자녀학교 사역과 청소년 제자반이 잘 운영되게 하소서.

박수홍 / 이민경(은진)

- 파송국가 : 몽골
- 파송교회 : 샘깊은교회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이사야 54:2-3)

주님의 은혜로2년 반 만에 몽골에서 한국에 나와 선교사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훈련을 통해 그 동안 달려온 저희 가정의 선교와 관점을 점검하고 주님의 저희 가정을 향하신 부르심과 계획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몽골의 영혼을 향하여 기쁨의 소식을 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아비의 마음으로 몽골민족을 품고 사랑 할 수 있도록
2.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3. 현지문화와 언어습득에 지혜를 주시도록
4. 가정교회와 교회 개척사역을 위하여
5. 은진이가 몽골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6.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

옥보리 / 김인정

- 파송국가 : 캄보디아
- 파송교회 : 수원중앙침례교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28:18-20)

주무립수어!
할렐루야! 저희는 캄보디아(옥보리) 한국(김인정) 국제결혼한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의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저희부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하늘나라시민과 하나님의 가족)을 갖고 살아가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 **기도제목**

1. 늘 성령충만한 선교사가 되도록
2. 기도의 동역자 300명을 만날 수 있도록
3. 파송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4. 캄보디아에 안전하게 입국하도록
5. 세 가정이 팀사역을 잘 이루도록

윤혜진

- 파송국가 : 국내 사역
- 파송교회 : 지구촌교회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 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 주시는, 살아 있는 징조와 예표다."(이사야 8:18 , 새번역)

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에서 단기선교사로 국내에서 여성선교사님과 MK들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도제목**

1. 말씀과 기도로 매순간 깨어있어 성령 충만하도록
2. 약속된 시간 지혜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도록
3.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들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이욱진 / 오혜민(하음, 하엘)

- 파송국가 : I국
- 파송교회 : 포항중앙침례교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예레미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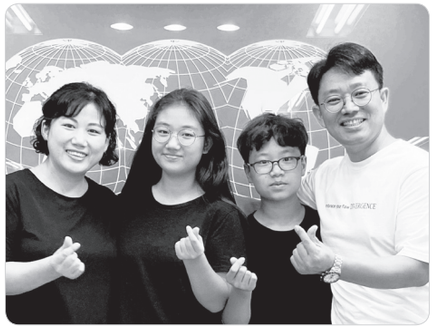
저희 가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르고 선한 마음으로, 좋은마음을 다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열방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름을 받았기에 부르신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것입니다.

■ **기도제목**

1.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2. 항상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3. 사역의 접촉점을 찾을 수 있도록
4. 평화의 사람, 동역자가 될 수 있는 현지인을 만나도록
5. 아이들이 현지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한울 / 송예심(은소리, 나단)



- 파송국가 : S국
- 파송교회 : 늘푸른교회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눅10:27)

쌀람 알라이꿈~
저희 가정은 2020년 6월~8월 21일까지 WMTC 에서 12주간 훈련을 위해 귀국하여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사헬이라부르는 S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들고 S국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서 사랑,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 **기도제목**

1. S국과 그땅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2.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3. 언어, 문화 습득과 정착에 지혜롭게 하옵소서.
4. 은소리, 나단이가 잘 적응하며 지내게 하옵소서.
5. 파송교회(늘푸른교회)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사진으로 보는 29기 훈련이야기

사진으로 보는 MK이야기

충성된 일꾼들의 신실한 삶의 이야기

이화섭 선교사 (서부 아프리카 세네갈)

선교사로 산 지 만 18년이 지났고, 그동안 나이도 오십이 넘어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안식년을 신청했습니다. 너무나 살기 좋은 고국 땅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을 오랜만에 맞이할 때 즈음, 세계선교훈련원에서 선교사업그레이드훈련(MUT)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신혼이었던 20년 전, 아직 선교사라는 이름이 낯설고 설레기만 했었던 그때, 이곳에서 4개월간의 장기선교사훈련(3기)을 받았었습니다. 훈련원을 둘러싼 주변의 모습은 많은 바뀌었지만, 훈련원은 그 모양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 주었고, 이제는 실장이 된 중년의 차지혜 자매를 만나는 것도 반가웠습니다.

4주간의 훈련을 위해 훈련원에 입소하고 보니, 동기들의 면면이 범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비상시국임에도 26명의 인원이 가득 찼고, FMB의 쟁쟁한 대선배 그룹에 이름 올리고 계신 분들이 여럿 보입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훈련 동기들 가운데 나이 기준으로 거의 막내 라인에 줄을 섰고, 경력 기준으로 딱 평균 정도에 머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첫 주에 훈련생들의 삶과 사역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20여분간의 시간을 배정받았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이 시간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각 사람의 삶에 찾아오셔서, 선교사로 불러주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 오랜 시간 죽도록 충성한 신실한 일꾼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노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도전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제한된 시간이 너무나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귀한 분들과 잠깐의 시간이지만 함께 교제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아졌습니다.

세심하게 준비된 강의들을 대하며, 저희도 세월을 지나왔지만, 세상은 더 많이 변

했고, 또, 더 빨리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고, 길을 찾게 됩니다. 이 또한 이 훈련의 목적 중 하나라고 이병문 부원장이 말씀해주십니다.

>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브리서 10:24,25)

선교사의 지친 마음이 회복되는 쉼의 자리는, 누워있는 자리가 아니라 같은 주님 모시고 같은 길을 걷는 상처 투성이 믿음의 동지들과 더불어 마음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캠퍼스의 가을 단풍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미처 몰랐습니다. 이때,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한 여행

장마야 선교사 (이집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7-8)

저는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섬기라고 보내신 이집트 땅에서 18년간 주님과 동행하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척박한 사막에 사는 아랍민족과 수단 피난민들을 섬기면서…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도 온전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보니 사역에만 매달리고 집중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지치고 메마른 저의 심령를 보게 되었고, 잠시 멈추고 다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한 여행을 하려고 올해 9월부터 1년의 안식년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선교훈련원(WMTC)에서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MUT) 소식을 듣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없이 어느 분의 권유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주부터 26분의 시니어 선교사들의 눈물과 회복, 그리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 들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선교 전략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좀더 포괄적인 사역의 그림들을 생각해 보고 계획해야 할 필요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 배우는 귀한 시간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마치고 그동안 사역에만 집중하느라 돌아보지 못한 내 자신과 사역들을 재평가하고,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무엇이며, 어떤 부분을 더 개발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는지를 멘토들의 조언과 기도 가운데 찾아가며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시니어 선교사들을 위한 재훈련(MUT)으로 섬겨 주시는 세계선교훈련원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 울고 삼십 번 웃자고 하셨는데…

김드보라 선교사 (M국)

하늘은 드높고,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형형색색으로 물든 곱디고운 단풍들…
참으로 오랜만에 맛본 고국의 가을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저는,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MUT)에 들어와
참으로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전, COVID-19로 인하여 막힌 하늘길이 속히 열리길 바랐지만
한달 한달 길어지는 항공 스케줄로 인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순간까지 선뜻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오직 훈련에만 집중하겠다고 결정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을 것만 같았던 첫 주의 디브리핑 시간을 통하여
너무도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의 여정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지금까지 소중하게 빚어 오셨고
그분들의 사역에 깊이 개입하셨음을 보며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 번 울고 삼십 번 웃자고 하셨는데,
시간 시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꼭 필요한 심리검사들,
4차 산업 혁명과 100세 시대, 선교사의 영성, 지도자의 평생 개발,
최신 선교 동향, 성숙한 대인관계, 선교사의 책무, 인터넷 강의,

은혜로운 예배와 주옥같은 말씀들.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는 훈련원의 스텝들…

그 어느 한순간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서 MUT에 참여해 보니,
진작 10년마다 MUT를 받았다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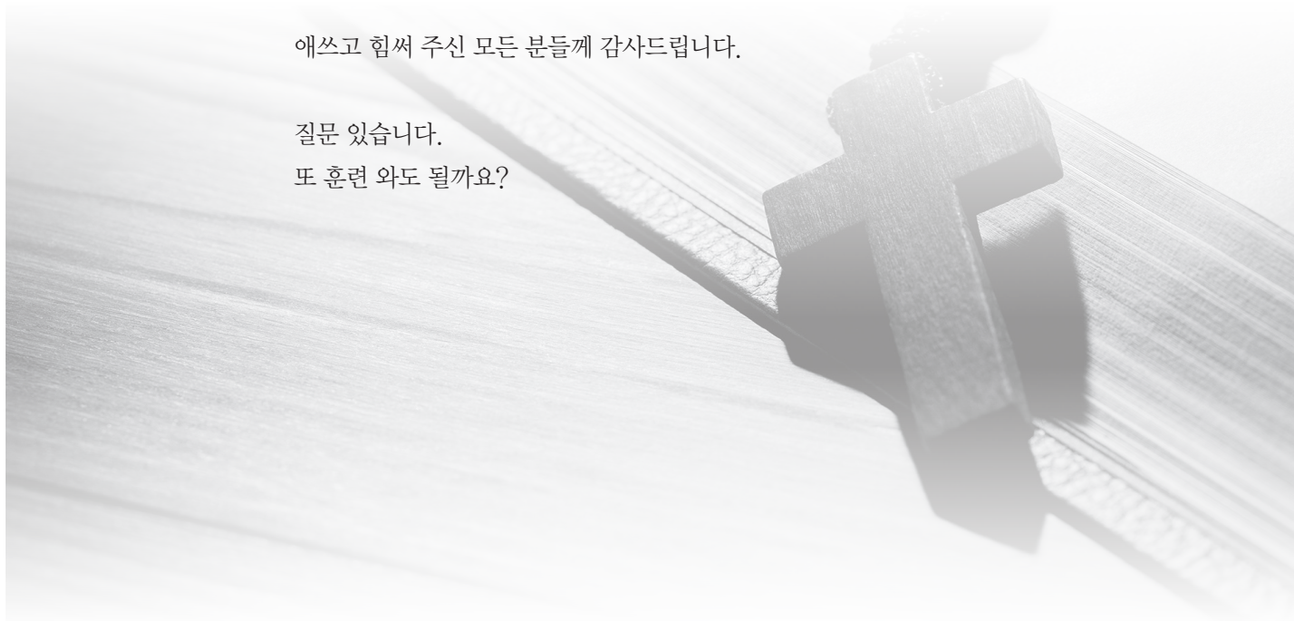
그리고 뭐 그리 바쁜지 자기 계발에 너무도 인색했고,
현지인 형제자매들에게 많이 신경 쓰지 못한 것이 생각나 너무 미안하기만 합니다.

이제 훈련의 절반을 넘긴 시점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오를 다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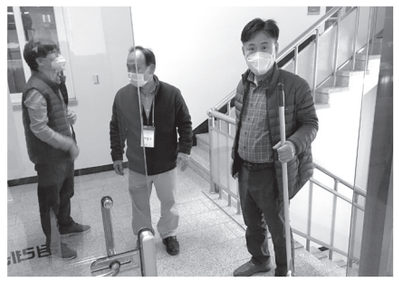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너무도 좋은 이 훈련의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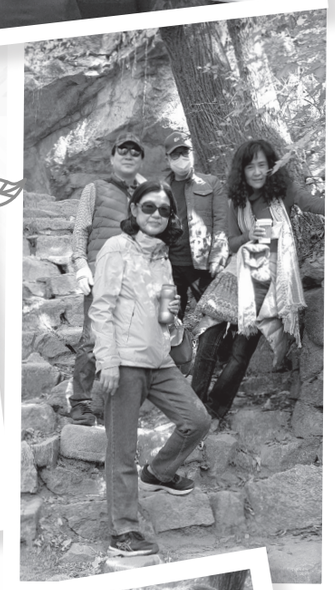
애쓰고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습니다.
또 훈련 와도 될까요?



사진으로 보는 MUT 훈련이야기





선교사훈련안내

세계선교훈련원(WMTC)은, 전문적인 선교사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단기 선교사훈련은 신임 선교사 후보생들이 인성, 타문화이해, 사역 기술 등의 훈련을 통해 사역과 삶에 균형을 갖춘 건강한 선교사가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며,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은 지난 사역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국제 사회 환경과 선교 환경에 대응하여 앞으로의 사역을 계획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30기 장단기 선교사훈련(신임선교사 훈련, Missionary Pre-field training)

- 훈련기간 : 2021년 3월 2일 ~ 5월 27일(13주)
- 훈련대상 : FMB 소속 장단기 선교사 후보생, 타 단체 소속 장단기 선교사 후보생
- 훈련내용 : 선교신학, 타문화 이해, 선교 전략, 사역기술, 전문상담, 인성훈련, 공동생활 등

2021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Missionary Up-grade Training)

- 훈련기간 : 2021년 10월 12일 ~ 11월 5일(4주간)
- 훈련대상 : 사역 10년차 이상 현직 선교사
- 훈련내용 : 디브리핑, 전문상담, 사역점검, 전문 강의 등

문의 | 침례교 해외선교회(02-2619-2202), **세계선교훈련원**(042-828-3371)

WMTC 이모저모

29기 장단기선교사 훈련(신임 선교사 훈련, Missionary Pre-field Training)

지난 6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12주 동안 29기 장단기선교사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연이은 장마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총 17명의 신임 선교사들(부부 8, 싱글 1)이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재확인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출 신임 선교사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MUT(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 Missionary Up-grade Training)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주에 걸쳐 진행된 MUT가 무사히 마쳤습니다. 총 26명(16unit)이 참석하여 세상의 변화와 새로운 선교의 흐름에 대해 인식하고, 남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무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29기 장단기선교사 훈련과 MUT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의 : 강태인 고인섭 권이현 김기태 김용국 김바울 김선숙 김용복 김재희 김중식 김진대 김필성 김형윤 김홍배 박창환 박희찬 백승화 손창남 송태준 양홍석 유관재 윤바울 이금주 이병문 이상웅 이영은 이영임 이욱진 이재경 이진희 이현모 임도균 정길용 정민영 정재교 조경호 조성배 주민호 차지혜 최병락 최원진 최주희 하호성 황권상 황 기

설교 : 김병권 김선배 박문수 박영철 박종철 손석원 유관재 이금주 이병문 이현모 임성도 주민호 최원진

상담 : 권이현, 김재희, 최주희

식사 및 간식 : 김중식 김재희 김형윤 민경원 박군호 박승희 박호정 박홍식 송태준 유관재 윤남균 윤종호 정서현 이금주 이보헌 이상웅 이지향 하영광 한정은 허혜영
강남중앙침례교회 꿈꾸는교회 디딤돌교회 마중물교회 새누리2교회 새누리3교회 새소망교회 샘깊은교회 세종지구촌교회 아름다운교회 예수나눔교회 인천주안교회 중문교회 지구촌교회 포항중앙침례교회 FMB

in2mission webinar(43기 인투미션)

급변하는 세상에 발맞춘 새로운 방식의 선교 교육, in2mission webinar가 지난 9월 8일~10월 28일 8주동안 진행되었습니다. in2mission webinar는 WMTC에서 마련한 온라인 선교학교로서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국내외 11개 교회 50여 명의 지역교회 성도들이 참석하여 수료하였습니다. 이번 in2mission webinar 수료생들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헌신하게 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낌없는 기도와 손길 감사드립니다!

♡2020년 05월 ~ 2020년 10월 기준
훈련원을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교회, 단체후원

광주중앙대청 굳센 꿈꾸는 늘사랑 다운 대전중앙 더지구촌 마중물 목양 밀밭 부여중앙 부산 새밝 새삶 새누리2 서부 서울제일 성림 세종선한목자 송탄중앙 수원 신흥 유성중앙 연산 여의도 예인 우림 울산성일 아름다운 전주 전주새소망 제자 좋은나무 주님의기쁨 중문 중앙 지구촌 천북제일 천안 천안비전 청주사랑의 큰빛 포도나무 포항중앙 하늘비전 한밭제일 행복 형제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 전국여성선교연합회

■ 개인후원

강미자 강복남 강예은 구상미 구정미 권미경 김광현 김경희 김기영 김동현 김미드미 김미라 김민숙 김선월 김순이 김순필 김순희 김은숙 김은실 김은실 김정식 김지영 김진남 김진순,정신형 김진옥 김춘규 김춘화 김필동 김헌숙 김희연 나광선 남궁래운 남궁숙 노영희 노용식 류시화 마송희 문미숙 박선영 박수정 박영수 박영옥 박인화 박찬숙 박향열 배말순 백만수 석정미 손광옥 손금란 신문자 신영임 신영주 신유정 안병례 안은주 안해경 엄은경 엄하영 이요한 우도환 위강철 유영철 윤경혜 윤상원 윤정자 윤혜진 윤희정 이강용 이경환 이경희 이금주 이미영 이미영 이병문 이병철 이분희 이선희 이수동 이수진 이연숙 이영재 이예슬 이옥구 이유섭 이종춘 이춘자 이치형 이현모 이현웅 이홍관 이희수,여경미 임춘옥 임해정 장성운 장영수 장혜정 전병임 전상섭 전창희 정갑순 정상모 정승 정성헌 정양숙 정원근 정은숙 정주애 정창교 조안심 조희영 주윤정 진용 진향숙 최경자 최군자 최명국 최명숙 최상규 최영미 최원진 최자영 최한숙 한승이 홍석진 홍재우 홍정민

세계선교훈련원 기도제목

1. 2021년 사역이 잘 계획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2. 30기 장단기선교사 훈련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 전문적인 선교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3. 후원교회 및 단체, 개인 후원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도록
4.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세계선교훈련원은 선교하는 가족공동체(Doing Missions as Family)입니다.

2021년 WMTC 사역 계획

1. 2021년 사역 환경 변화

– WMTC 리더십의 변화(원장 취임)로 선교훈련의 발전과 방향전환
– 코로나–19의 위협은 하반기부터 약화되어 선교사훈련의 장애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 새로운 FMB의 리더십의 변화(회장, 이사장 취임)로 새 방향을 향한 지원
– 선교지망생이 전년(40명)보다 감소하지만, 기존 선교사훈련의 필요성 증대

2. 2021년 사역 기본 일정

■ 선교사훈련	30기 장단기선교사훈련	3/2 ~ 5/27(13주) 예정
	2021 MUT Professional	7/20 ~ 8/21(5주) 예정
	2020년 MUT Senior	10/12 ~ 11/5(4주) 예정
■ 인투미션	교회방문 인투미션	3~5월, 9~11월
	신학교 인투미션	3~5월
	인투미션 웨비나	3~5월, 9~11월
■ 신학교 사역		

3. 2021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 내역			비 고
			2021예산	2020실적	증감	
수입	선교사 훈 련	30기 선교사훈련	36,000	68,370	–32,370	선교사훈련 3회 예정
		MUT–professional	7,200	0	+7,200	
		MUT–senior	12,000	16,770	–4,770	
	동 원	인투미션(교회)	8,000	0	+8,000	3–4회의 인투미션 과정개설 예정
		인투미션 웹비나	2,400	1,620	+780	
		청소년 인투미션	0	0	0	
	후 원	일반후원	140,000	135,140	+14,860	외부후원 비율 2021년 67% 2020년 64%
		특별후원(시설보완)	15,000	49,658	–34,658	
		특별후원(선교주간)	5,000	0	+5,000	
	대 관	게스트하우스/대관	12,000	9,910	+2,090	
	순수입 소계		237,600	271,468	–33,868	훈련인원 감소로 수입 감소 예상
	이월금(전년이월)		31,000	32,737	–1,737	
	합 계		268,600	304,205	–35,605	
지출	선교사 훈 련	신임선교사훈련	20,000	33,050	–13,050	훈련의 감소로 훈련비용 감소
		MUT–pro.	6,000	0	+6,000	
		MUT–Senior	8,000	11,800	–3,800	
	동 원/ 선교교육	인투미션(교회)*1	4,000	0	+4,000	하반기부터 동원 사역 회복 기대
		인투미션 웨비나	2,000	3,000	–1,000	
		신학교 인투미션	2,000	0	+2,000	
	일 반 경 비	직원보수	135,000	158,892	–23,892	2020년 8년차 직원의 퇴직으로 인건비 증가 시설보수 감소
		시설관리비	10,000	20,455	–10,455	
		일반관리비	25,000	17,928	+7,072	
		운영비	20,000	18,555	+1,445	
		연구학생비	5,000	7,251	–2,251	
		매입 지출/기타	5,000	2,276	+2,724	
	순지출 소계		242,000	273,207	–31,207	지출규모/이월금 감소 예상
	이월금(차년이월)		26,600	30,998	–4,398	
	합 계		268,600	304,205	–35,605	